A STUDY ON THE NESCESSITY OF APPLICATION TO URGE

THE CHANGE OF LIFE OF THE AUDIENCE THROUGH PREACHING

A THESIS-PROJECT

SUBMITTED TO THE FACULTY OF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REQUIREMENTS FOR THE DEGREE

DOCTOR OF MINISTRY

BY

YOOJEUNG KIM

MAY 2022

헌사

이 논문이 출간되도록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들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해 주신 어머님과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바칩니다.

CONTENTS

ACKNOWLEDGMENTS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가르쳐주시고 지도해 주신 류응렬교수님과 문석호 교수님 그리고 옆에서 논문 교정을 도와 준 김용곤 목사님 이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설교에 대하여 1 Residency 지도해주신 Dr. Jeffrey Arthurs 교수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학생활 가운데 저를 기도와 격려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를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가족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특히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소망 즉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하며 주님 오실 그날 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인도하신 성령님의 인도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내가 어느 곳에 있던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누며 살기를 다짐하며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더욱 열심히 헌신 하겠습니다.

MAY 2022 김유정

ABSTRACT

In a pastoral environment, it is not easy for a preacher to find and deliver an interpretation of the Bible, an illustration according to the text of the Bible, and application of the Word every time. Also, the members who are listening to the sermon during worship find it difficult to know how to apply the word to their lives. Because some preachers interpret the words of the Bible, others do it without concrete application. They must leave the application to the audience or rely on the work of the Holy Spirit. Of course, relying on the Holy Spirit is God's work that no one can deny, but on the other hand, we must remember how our audience can change their lives through the teachings of Jesus. Jesus commanded his disciples to 'teach them to obey'. So, preachers must make concrete applications of God's Word to the audience to change their lives. Through the survey, I will examine how the application is actually helpful to the audience in the sermon.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of great help not only to this researcher but also to the preachers regarding the correct understanding and need for application. It will guide preachers to think and put into practice how preacher's audiences want actually to hear a sermon for changing audiences' life and how preachers should prepare application for audiences.

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 제기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한인교회 목사들의 대부분은 현지 미국 교회 목사들에 비해서 일주일에 설교 횟수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필자가 미국에서 섬기고 있는 소리교회에서는 일 주일에 새벽기도회 5 회, 주일예배 1 회, 수요예배 1 회로 총 7 회에 걸쳐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로 섬기고 있다. 반면에 우리 교회와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그레이스교회(Grace Church)의 미국 목사는 특별한 예배가 없을 경우에 일 주일에 1 회 예배를 인도하며 설교로 섬기고 있다. 즉, 일 주일에 한편의 설교를 하고 있다. 연구자가 탈봇신학교(Talbot Theological Seminary)에서 성경해석학을 배울 때 필자를 지도했던 마이클 윌킨스(Michael Wilkins) 교수는 일 주일 동안 주일 설교를 어떤 절차로 준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면서 미국 교회 목사들의 대부분은 일 주일에 보통 한 두 편의 설교를 한다고 말했다. "4 페이지 설교(The Four Pages of The Sermon)" 라는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었던 캐나다 토론토대학의 폴 스캇 윌슨(Paul Scott Wilson)은 새로운 형식을 갖춘 설교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면서 설교 한 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4 페이지의 구성요소로 4 일동안 설교를 준비할 것을 제안한다.[1]

[1] Paul Scott Wilson, *The Four pages of the sermon*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9), 260.

이처럼 설교는 목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기독교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고 약화되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전해질 때 결국 교회는 타락의 길을 걷고 말았다.[2] 그런데 한인교회의 대부분은 소규모의 미자립 교회이기에 재정적인 이유로 부교역자들을 청빙할 수 없어서 담임목사 혼자서 매 주일 여러 편의 설교를 감당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정장복 교수에 따르면 한국 교회 목사들은 평균적으로 1 년에 156 회, 10 년에 1560 편의 설교를 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담임 목사 한 사람이 이런 분량의 설교를 감당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3]

이와 같은 목회적 환경에서 설교자가 매번 성경해석과 그 성경 본문에 따른 예화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한 적용을 찾아서 전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또한 예배 중에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도 역시 그 말씀을 각자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지가 쉽지 않다. 어떤 설교자는 성경말씀을 해석하면서 그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예화를 들기는 하지만, 정작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적용에 대한 내용을 거의 생략하거나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본문과 맞지 않는 적용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다.[4] 따라서 복음의 핵심을 듣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가 바로 적용이다. 그런데 설교를 듣는 청중은 설교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과 삶 속에서의 적용 사이에서 대체로 길을 잃는 경우가 많다.

---

[2] Daniel J. Baumann, *현대설교학 입문*, 정장복 역 (서울: 양서각, 1983), 13.

[3] 정장복, *한국교회의 설교학 개론* (서울: 예배와 설교아카데미, 2006), 29.

[4]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2003), 211.

목회 현장에서 사실 이런 상황을 부인할 수 없다. 어떤 목사는 설교자는 성경을 잘 해석해 주는 사람이고 설교자가 해석해 준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은 청중의 몫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게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설교자 중에도 설교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심지어 어떤 설교자는 자신은 아주 신령해서 오직 성경 말씀만 전하고, 예화나 삶의 구체적인 적용을 말하지 않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도 있다. 이와 같이 여러가지 설교에서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어떻게 적용 부분을 전했으며, 초대교부들이나 이러한 설교의 역사들을 이어온 시대별 설교자들의 설교의 특징 가운데 설교에서 적용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설교에서 적용의 대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적용 부분을 연구하려고 한다.

제 2 절 연구의 동기와 목적

설교에서 적용과 관련하여 신학자와 설교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설교자는 성경 해석만 잘해서 전달하고 적용은 청중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설교자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 주는 것이며, 적용은 청중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설교자가 구체적인 적용을 제시하는 것은 적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성령께서 하시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5] 프래드 크래독(Fred

[5] Michael Lawrence, “No Application? Then You Haven’t Preached” in *Preaching & Theology*(*9marks.org);* “But there’s a fifth, more theological reason some of us neglect application in our sermons. We’re convinced

Craddock)은 설교의 결론을 내리거나 청중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거나 삶의 결단을 촉구하도록 하기 보다는 이야기식 설교를 들려준 후에 삶의 적용은 청중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6] 유진 로우리(Eugene L. Lowry)도 설교에서 마지막 결론을 맺거나 적용하는 것을 거부하고 청중에게 맡길 것을 주장한다.[7] 칼 바르트(Karl Barth)는 "설교자가 특정한 적용을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을 방해할 뿐이다."[8]라고 주장한다. 게다가 데이비드 버트릭(David Buutrick)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성경을 언급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다고 담대히 말해야 한다. 반드시 성경에서 설교해야만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니다."[9] 따라서 그는 설교자가 어떠한 상, 즉 이미지를 심어 줌으로써 청중으로 하여금 그 이미지를 통해 스스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직접적으로나 권면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청중의 마음을 제한하거나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다.

둘째, 설교자는 해석만이 아니라 확실한 변화를 기대하는 적용을 통해 실제적인 삶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설교자는 적용에 대한 중요성을 강하게 주장한다. 예를 들어. 마이클 로렌스(Michael Lawrence)는 "만약 적용이 없다면 당신은 설교하지 않은

---

application is someone else's job and ultimately beyond our pay grade. Isn't it the Holy Spirit who must finally apply the text to a person's heart? If I apply it, and it doesn't apply, haven't I let people off the hook? But if I put the truth out there, and then get out of the way, then the Holy Spirit has a clear field to do his work. And he'll do it far better than I could anyway."; 마이클 로렌스는 2015 년 오리겐주 포틀랜드 소재 힌슨침례교회(Hinson Baptist Church)의 담임목사로 재직중이다.

[6] Charles L. Campbell, Craddock, Fred B., in *Concise Encyclopedia of Preaching*, 64.

[7] 류응렬, *진리의 말씀으로 강단을 숨쉬게 하라*, 유진 로우리의 설교와 평가 연재 (기독신문, 2019); Richard L. Eslinger, A New Hearing: Living Options in A Homiletic Method 에서 발췌.

[8] 류응렬, *Pastor as preacher* (Gordon Conwell Theological seminary, D. Min 설교 강의안, 2018), 36.

[9] 류응렬, *새설교학자들의 성경관과 개혁주의 설교* (RN 리폼드뉴스, 2013); 그러나 류응렬 교수는 버트릭의 이와 같은 의견에 반대하여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성경, 그리고 설교로 흘러가게 하는 모델은 복음에 위배될 뿐 아니라 설교를 망쳐버리는 엄청난 교만으로 이끌어 간다." 라고 주장한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적용을 피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라고 주장한다.[10] 또한 명설교가 스펄전(Charles Haddon Spurgeon)은 “적용이 시작되는 곳에서 설교도 시작된다.”라는 말을 했다.[11] 류응렬 교수는 “적용 없는 설교란 마치 목표물 없이 날아가는 화살과도 같다.”라고 말하면서 설교에서 적용에 대한 중요성을 주장한다.[12] 또한 조엘 비키(Joel R. Beeke)는 그의 글에서 “적용은 설교자 자신에게서 시작된다.”라고 주장한다.[13] “운저 머릴(Unger Merrill)은 설교를 듣고도 구체적인 실천이 없는 한 경건한 삶을 추구할 수 없기에 설교자의 선포된 설교는 막연하게 공중에 울리는 소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14] 해돈 로빈슨(Haddon Rovinson)따르면 “그래서 어쨌다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며, 설교는 청중의 삶을 터치하고 만지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적용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5] 정장복 교수는 “설교란 성경의 진리에 기초하여 그 말씀을 전하고, 해석하고, 적용시켜 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16] 이처럼 설교는 성경해석에 근거한 적용을 제시함으로써 설교자 자신과 청중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연구자는 두번째 견해의 입장에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설교를 듣는 청중은 성경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뿐만

[10] Michael, “No Application? Then You Haven’t Preached”; “Avoiding application is also quite simply unbiblical. Application is precisely what we see the preachers and teachers of God’s word doing on the pages of Scripture.”

[11] William Evans, *How to prepare Sermons* (Chicago, IL. Moody Publishers, 1939), 488; “Says Spurgeon: Where the application begins, there the sermon begins.”

[12] 류응렬. *설교에 대한 특별기고* (기독신문, 2019.2.14).

[13] Joel R. Beeke, *설교에 관하여*, 송동민 역 (서울, 복있는 사람, 2019), 551.

[14] Merill F. Unger, *강해설교의 기술*, 편집부 역 (서울: 보이스사, 1991), 89.

[15] Haddon Robinson, Craig brian Larson, *성경적인 설교와 설교자* (서울, 두란노, 2006), 442.

[16] 정장복, *한국교회의 설교학개론* , 102.

아니라 다양한 직업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 가운데는 설교를 듣는 것 자체도 힘들어하고 더욱이 그 설교를 듣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엄두도 못 내는 이들이 있다. 이와 같은 청중의 항변을 데이비드 비어맨이 잘 담아내고 있다. 그에 따르면 적용은 "so what?"과 "now what?"이라는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라고 한다. 첫 번째 질문은 '그래서 무엇을 하라는 말인가?'를 묻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오늘날 이 말씀과 관련해서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를 묻는 것이다.[17]

청중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교에 있어서 적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야 한다. 이에 필자는 오늘날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해야 하며, 또한 설교의 적용을 통하여 어떻게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설교가 되어야 하는지 살펴보면서 적용에 대한 필요성과 삶의 적용을 선포할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것을 위해 성경에서 몇몇 구약의 선지자의 설교와 신약에서 예수님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바울의 설교를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설교의 특징과 적용을 분석하여 그들이 어떻게 설교를 통하여 선포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성경 본문을 인용할 때는 본문 자체를 해석하고 그 의미를 깊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고 필자가 섬기는 소리 교회 성도들과 주변의 이웃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자가 성경 본문을 해석만 했을 때와

[17] Dave Veerman, *How to apply the Bible* (Carol Stream, IL: Tyndale, 1993), 32.

적용을 했을 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조사하여 통계를 낼 것이다. 또한 설교 가운데 적용이 있는 설교와 적용없이 성경해석으로만 끝나는 설교가 각각 청중에게 얼마나 은혜로운 삶을 살게 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실제적 적용을 제시함으로써 어떻게 삶이 변화되었는지 실제 사례를 수집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대략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 1 장 서론에서는 문제 제기와 연구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제시한다. 이것은 설교에서 청중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하여 논한다.

제 2 장 에서는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족장 혹은 선지자들의 설교를 통하여 어떻게 적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논하고자 한다.

제 3 장 에서는 교회사를 통해 본 설교자들의 설교와 적용을 살펴보고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설교 가운데 적용을 하고 있는지 논할 것이다. 이 장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다루기 때문에 대표적인 교부들, 종교개혁자들, 18-19 세기 설교자들 그리고 현대 설교자들의 설교와 적용을 살펴보고 어떻게 설교 중에서 적용을 포함하고 사용하고 있는 지 논하고자 한다.

제 4 장에서는 오늘날 설교에서 적용의 다양한 접근 방법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적용의 다양한 방법과 적용에 대한 바른 이해 더 나가서는, 청중의 유형을 알아보고 거기에 맞는 적용을 논할 것이다.

제 5 장에서는 설교 가운데 적용이 있는 설교와 없는 설교를 5 가지 측면의 질문을 통하여 무작위로 참여한 약 40 명의 참가자들의 반응과 설문 응답을 접수한다. 그리고 받은 응답을 통하여 약 세 부류의 응답 나누고 그것을 토대로 통계와 분석을 하고 그들의 구체적인 설문 응답 3 개정도를 이 논문에 게재할 것이다.

마지막 6 장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설교 중에서 적용 부분이 실제로 청중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청중들이 설교를 듣고 삶의 변화를 꿈꾸고, 도전하고 그리고 결심하는데 도움이 되고, 필요한지를 결론적으로 언급한다.

이 연구를 통해서 본 연구자 뿐만 아니라 설교를 하는 모든 설교자들에게 적용에 대한 바른 이해와 청중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그리고 청중들이 실제로 설교를 듣고 삶의 변화를 어떻게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설교자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하고 실천하게 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은 본 연구자가 청중에게 5 가지 질문을 통하여 들었던 대답들을 논문에 몇 가지씩 게재하므로 설교를 듣는 청중의 소리를 설교자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설교자가 피부적으로 적용에 필성을 느끼게 될 것을 확신한다.

제 2 장

구약과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설교와 적용

제 1 절 구약에서 설교와 적용

1. 선지자들의 메시지 선포

구약성경의 상당부분은 이야기(narrative) 형식으로 내용이 전개된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방적 선포나 일정한 설교 형식을 띄고 있는 것이 아니라 3 인칭관찰자 시점에서 예언적 성격을 지닌 이야기 형식으로 전개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예언적 성격을 지닌 이야기 형식을 통하여 전해지는 구약 설교자들의 메시지가 청중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지를 살펴볼 것이다.

모세오경이나 선지서에서는 청중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적용의 예가 많이 나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수여하셨을 때 그 율법은 단순히 관념적인 개념으로 주어진 것이 아이다. 오히려 백성 각자가 그 율법의 정신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실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구체적인 풍성한 적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그저 하나님의 추상적인 뜻만 알려 주시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신 후 그 뜻을 따라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 제시해 주셨다.

가. 출애굽기에 나타난 모세의 설교 적용

모세의 여러 설교 가운데 출애굽기 20 장에 기록된 십계명을 살펴보고자 한다. 모세(מֹשֶׁה)는 '물에서 건져내다' 라는 뜻이 있는데, 그 이름 뜻대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내셨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십계명)을 받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한 대선지자로 사실상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의 부친은 레위지파 출신 아므람, 모친은 요게벳, 형은 아론, 누나는 미리암(출 2:1; 6:20; 민 26:59)이다.[18] 이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록한 십계명에서 그의 메시지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 2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 3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 4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 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 6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 7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8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9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 11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 12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 13 살인하지 말라 14 간음하지 말라 15 도둑질하지 말라 16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7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출애굽기 20:1-17).

십계명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열 개의 명령(출 34:28)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율법의 요약이자 핵심이며 오경의 뼈대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위해서 주신 보편적인 삶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

[18] 가스펠서브, *라이프 성경사전*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6), 309.

십계명은 출애굽기 20 장 3–17 절과 신명기 5 장 7–21 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열 마디 말씀' 이란 표현으로 등장한다(신 4:13; 10:4). '십계명' 이라는 명칭은 교부였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 of Alexandria)가 최초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십계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교제함으로 풍성한 기쁨의 삶을 살도록 지혜를 공급하려는 것이다. 십계명은 '…하라'는 3 개의 긍정적 명령에 기초하여, 그것에 종속되는 '…하지 말라'는 부정적 명령의 형식으로 구성되었다.[19]

제 1 계명에서 제 4 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 1 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라고 말하고, 제 2 계명에서부터 제 4 계명까지는 구체적으로 그의 백성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적용을 말한다. 더 나아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율법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신명기를 통해 그것을 다시 한번 설교한다. 삶에 첫째로 적용해야 할 것은 제 2 계명에 나타나는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구체적인 적용을 제시하고 있다. 게다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즉,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삶에 그것을 적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죄를 묻겠다고 하신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 않는 자에게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셨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계명을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함으로써 그들의 마음과 행위가 변화되어야 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19] 가스펠 서브, *라이프 성경사전*, 638.

또한 제 4 계명,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할 지를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 이후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이 제시된다. 즉, 구체적으로 안식일을 어떻게, 왜 지켜야 하는지를 제시한다(출 20:9-11).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을 쉬라고 하신다. 집안의 모든 가족, 노예, 가축까지도 일을 쉬라고 하신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6 일간 창조의 사역을 하시고 제 7 일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신다. 이처럼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에 이어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이 제시되고 있다.

대인 계명의 첫번째로 주신 '네 부모를 공경하라'(출 20:12; 신 5:16)는 선언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살인, 간음, 도적질, 위증, 탐욕 등을 금지하고 있다(출 20:13–17; 신 5:17–21). 예수님은 이 열 마디의 말씀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시며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20]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십계명의 원리가 심화되고 확대된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인들도 이 계명에 복종하도록 요구된 것이다. 즉, 기독교인들은 이 십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의 율법으로 그 의미를 확대하여 받아들이고 있다.

나. 이사야의 메시지에 나타난 적용

이사야(יְשַׁעְיָהוּ)는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으로 '여호수아', 신약의 '예수'와 그 의미가 동일하다. 왕실 선지자로 추정되는 그는 모든 선지자 가운데 대선지자, 선지자의

[20]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을 율법, 선지서, 성문서로 분류하는데,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은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다(눅 24:44 참조).

왕으로 불린다. 이사야는 선지자로 부름 받은 이후 하나님의 백성 유다와 열방의 운명을 동시에 예언하면서 유다의 회개를 촉구했는데, 당시 유다는 앗수르와 애굽이라는 양대 강국 사이에서 자신의 운명을 맡기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했으며, 그 와중에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사회적 타락과 도덕적, 영적 부패가 심각했다(사 1:2–20).[21]

"많은 학자는 이사야를 구약의 신학자로 생각한다.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 속에서 이뤄진 그분의 활동에 대한 그의 묘사는 심오하고도 아름답다. 그러나 추상적인 신학자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속성 및 의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스라엘이 직면하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에 적용하였다."[22] 즉, 이사야의 설교는 예언적이면서 동시에 그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선포했다. 첫째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었으며, 둘째로 그들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고, 셋째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었다.

66 장으로 구성된 이사야의 설교 가운데 이사야 1 장 10-17 절을 통해 그가 제시한 구체적인 적용의 예를 살펴보려고 한다.

> 10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11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21] 가스펠 서브, *라이프 성경사전*, 862.

[22] Tremper Longman III and Raymond B. Dillard,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Second Edition. (Grand Rapids, MI: Zondervan, 2007), 312.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15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16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17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 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1:10-17)

이 본문은 절기를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근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열성적인 종교적 행위에만 몰두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사야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내용이다. 즉, 종교적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싶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사회 정의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종교의식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진정한 마음을 원하시는 데, 그들은 마음이 없이 형식적인 종교 의식에만 빠져 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것이다. 이사야는 그 백성의 변화를 기대하며 잘못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참된 신앙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사야는 16-17 절에서 적용을 구체적으로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적용점은 먼저 그들 자신이 스스로 씻는 것이다. 이것은 정결의식으로 예배의 한 부분이었으며, 부정한 사람을 의식적으로 정결케 함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사야는 여기서 그들이 물로 정결 의식을 행할 뿐 만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마음을 씻고 그들의 생활 속에서 삶의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한다.[23]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23] Trent C. Butler, *Isaiah*, vol. 27, Holman Old Testament Commentary (Nashville, TN: Broadman & Holman Publishers, 2000), 36.

위하여 변호하라 “(사 1:17) 라고 구체적인 적용을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일상 생활 속에서 삶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요구하고 있다. 곧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이 그들의 생활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선지자의 대표격인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백성들의 삶이 변화하도록 적용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다. 포로 후기 에스라의 설교에 나타난 적용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생활에서 귀환한 후 학사 에스라의 설교와 지도 아래 이스라엘의 재건 사업이 이루어진다. 이 재건 사업은 물리적 측면과 영적 측면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물리적 측면에서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측면에서는 잘못된 영적 습관들을 제거하고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재건하는 것이다. 이 재건 사업을 위해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특히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는 일을 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선포하였다. 그 중에서 에스라 10 장 7-12 절에 나타난 에스라의 메시지에서 어떤 적용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 “7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8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삼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적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9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삼 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이십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10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11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리라 하니 12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포로에서 귀환한 에스라는 많은 근심에 싸여 있었다. 고국에 남아 있었던 자들이나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의 공통적인 문제는 이방 여인들을 배우자로 맞이하여 결혼한 것과 그로 인해 잘못된 신앙으로 물들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엄청난 고뇌에 빠져 있었다. 심지어는 너무 근심한 나머지 음식과 물도 먹지도 마시지 않고 허탈한 상태로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 속에 죄가 너무나 관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라는 귀환한 백성들로 하여금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명령하여 그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한다. 그 선포의 내용은 그들이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에 죄를 더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 짧은 구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더 나가서 11 절에 바로 그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 지를 구체적인 적용을 말한다.

그 적용의 핵심은 먼저 회개하라는 것이다. 즉,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는 것이다.[24]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포라고 말할 수 있다. 교회의 설교가 듣기 좋은 말로만 가득 차 있어서 회개의 선포가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에스라의 메시지는 직접적으로 회개하라고 선포한다. 그리고 그의 뜻대로 행하라고 말한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말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리라는 것이다. 에스라는 삶의 기초인 하나님의 율법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공동체의 생존이 걸려있기에 에스라의 생각에 결혼 문제는 결코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래서 에스라는 지도들과 그 백성에게 이방 여인과 이혼하라고 구체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

[24] H. G. M. Williamson, *Ezra, Nehemiah*, vol. 16, Word Biblical Commentary (Dallas: Word, Incorporated, 1985), 155.

제 2 절 신약에서 설교와 적용

1. 예수님의 설교와 적용

예수님의 설교는 대부분 단순하면서도 짧은 강화 형식이 많고 심지어는 청중이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리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의 설교는 목표가 정확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5 편의 설교가 등장하는데, 산상설교(5-7 장), 제자 파송 설교(10 장), 천국 비유 설교(13 장), 제자 공동체 설교(18 장), 종말 설교(24-25 장) 가 그것이다. 이러한 설교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말씀이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과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교훈적 적용이 풍부하게 등장한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5 장 21-24 절을 살펴보고자 한다.

> 21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3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마 5:21-24)

예수님은 여기에서 제 6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의 본래의 의미와 더불어 그 폭넓은 적용을 언급하신다. 즉,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심지어 욕을 하는 것까지도 살인의 범주에 넣어서 해석을 하신다. 그리고 곧바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적용을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살인에 대하여 정확하고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를 알려 주신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메시지는 율법의 참된 의미를 설명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동시에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신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의 메시지에서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적용을 중요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베드로의 설교와 적용

베드로의 메시지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몇 편의 설교와 베드로전후서를 통하여 발견된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의 메시지는 보고 들었고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고난 당하게 하고 죽게 한 무리들의 죄를 지적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을 통해 그가 전하고자 메시지의 핵심내용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했다는 것과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설교 전체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 장 36-42 절을 통하여 그의 설교 말미에 나타난 적용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37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 39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0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42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행 2:36-42)

베드로는 복음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약한 모습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의 메시지는 보고 들은 것 즉, 그가 직접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가 바로 우리의 주와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의 설교를 듣던 청중은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하여 마음이 찔림을 받는다. 그러자 베드로는 사도행전 2 장 38 절을 통하여 구체적인 적용을 말한다. 그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찔러 고통스러워 하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을 열거한다.

베드로의 적용으로 초대를 받은 자들에 대하여 41 절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베드로의 설교 안에서 구체적인 실천사항 즉, 적용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즉각 순종했다. 베드로의 이 선포적인 설교를 통하여 청중들이 적용해야 할 것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었다. 그리고 곧 삼천 명이 변화를 받아 성도가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비록 선포적인 메시지라고 하더라도 그 적용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적용에 실제적으로 순종할 때 영적인 열매가 있었다는 것을 이 본문을 잘 말 해주고 있다.

3. 스데반의 설교와 적용

스데반은 형제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공동체로 하여금 칭찬을 받는 택한 받은 일곱 사람들 중 한 사람이다. 그는 다른 택함 받은 사람들보다 돋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었다. 사도행전 7 장에 나타난 그의 긴 설교에서 사도들에 버금갈 정도로 구약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스데반의 설교는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인가를 전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다음의 적용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다.

> 51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52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53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행 7:51-53)

스데반은 사도행전 7 장 1 절부터 53 절까지 긴 설교에 나타난 적용점은 51 절 의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다. 이 말은 그들의 삶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설교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그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마지막 51-53 절에 잘 나타나 있다. 그들의 조상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외친 선지자들을 박해했으며 또한 그들 역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똑같은 방법으로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죽였다고 말한다.[25] 2 인칭 복수형 ‘너희’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청중의 주의를 끌면서 그들에게 적용점을 심어준다.

45 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고 라고 묘사한다. 그의 설교를 통해 구약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조명할 때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은 것이다. 51 절부터 53 절 사이에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

---

[25] Kenneth O. Bangel, *Acts*, vol. 5, Holman New Testament Commentary (Nashville, TN: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8), 109.

조상들이", "이제 너희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이라고 2 인칭으로 계속하여 강조함으로써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말씀을 적용한다. 즉, 구약 성경을 단순히 해석하거나 거기에 담긴 정보만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너희"라는 2 인칭 복수 대명사를 통해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큰 찔림이 되었다는 것이다. 허공에 띄워진 애드벌룬처럼 그 누구의 손에도 닿지 못하게 멀리 있지 않고 손목에 감겨진 풍선처럼 아주 가까이 있게 했다. 이것이 바로 적용의 묘미라고 생각한다. 이 적용은 두 가지로 그 양상이 드러나게 된다. 즉, 순종하여 삶이 변화하든지 아니면 불순종으로 저항하든지 말이다.

4. 바울의 설교와 적용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통하여 그의 메시지를 여러 지역에 전달했다. 그의 메시지는 그 편지를 받는 교회의 문제와 형편을 둘러싼 논제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어서 실천적인 교훈과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다시 말해서 사변적인 논제 설명만으로 그치지 않고 청중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천적 내용이 뒤따르는 서신을 보내게 되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 어떻게 설교를 하고 적용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이론편과 실천편(적용편)으로 구성되는 그의 서신보다 오히려 사도행전에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했던 바울의 설교를 살펴 보고자 한다.

> 38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 39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40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41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행 13:38-41)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는 것을 들었다. 회당장이 바울 일행에게 만일 권할 말을 있으면 말하라고 요청한다. 그런데 여기서 '권할 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로고스 파라클레세오스' (λόγος παρακλήσεως)이다. 이 어구에서 속격으로 사용된 파라클레세오스는 신약성경에 29 회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격려', '권면', '권고'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 당시에 회당 예배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참석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권면의 말이 이어졌다. 회당에서 성경 낭독과 함께 이어지는 격려의 말은 강론이나 낭독한 성경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다.[26]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의 설교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설교의 특징은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사건인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먼저 언급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떤 인물을 사용하여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말한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열거되는데, 대개는 아브라함, 다윗 등의 순서로 배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설교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그의 사역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사해주는 능력이 있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들의 자녀에게 보내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무엇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바울의 설교 마지막 부분인 사도행전 13장 38-41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26] Darrell L. Bock, *Acts*,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7), 451.

바울은 청중에게 변화를 촉구하는 말을 하면서 ‘너희가 알 것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그런즉 너희는’, ‘너희에게 미칠까’ 라는 어구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을 전한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좀 더 구체적인 적용은 이것이다.

> “그러므로 예언자들이 말한 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보라. 너희 비웃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행하겠다. 누군가 그 일을 너희에게 전해준다 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행 13:40,41 우리말성경)

바울은 선지자 하박국 1 장 5 절을 경고로 인용한다. 그는 청중에게 그가 행동할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이 내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한다. 그는 그들에게 이전 세대처럼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한다.[27] 그러므로 그 당시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멸망한다는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라는 것이다.

[27] Bock, *Acts* , 461.

제 3 장

교회사를 통해 본 설교자들의 설교와 적용

이번 장에서는 사도 시대 이후 속사도 즉, 교부시대로부터 종교개혁 시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주요 설교자들의 설교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료로 남아 있는 이 시기의 모든 설교자들의 설교를 다 살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기에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설교자들의 설교 중에서 적용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교부들의 설교와 적용

1. 오르겐 (Origen)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대표하는 오르겐은 매우 독창적인 신학 체계를 세웠기 때문에 이단과도 논쟁하였고 교회와도 종종 마찰을 일으켰으며, 금욕주의의 관습을 따라 스스로 고환을 자른 것으로도 유명하다.[28] 오르겐의 삶과 일의 중심에는 늘 성경 연구가 자리잡고 있어서 그가 남긴 글의 대부분은 성경에 대한 주석이나 설교이다.[29]

'최초의 기독교 조직 신학자'로 알려진 그가 강론의 고전 형식을 확립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설교 연구는 막연한 것에서 확실한 것으로 옮겨갔다. 기독교 설교는 오르겐과 함께 역사의 분명한 빛으로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형태를 갖추었다고도 할 수

---

[28]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 10/12/2021

[29] Origen, *Commentary o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Books 1–10, trans. Ronald E. Heine, vol. 80, The Fathers of the Church (Washington, DC: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1989), 3–4.

있다.[30] 또한 그는 성경 본문의 역사적, 문법적 의미에 대한 세심한 주석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그의 설교는 본문을 해석해서 설명하고 적용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설교였다.[31]

오르겐의 설교에는 반복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섭리를 거부하는 자, 유대인, 영지주의자와 같은 반대자들에게 맞서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는 기독교 교리가 중심을 이룬다. 그리고 그의 설교에는 풍유적(allegorical) 해석과 적용들이 등장한다.[32] 그 당시 신화와 철학이 주류를 이루었던 그리스 문화 속에서 오르겐이 주장한 성경 해석 원리는 그리스인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그의 풍유적인 성경 해석은 그 당시 철학이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그 시대의 철학은 고전적 플라톤주의와 신플라톤주의 사이의 과도단계 즉, 중간적 플라톤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철학적 환경이 오르겐의 신학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33] 여기서는 오르겐의 전반적인 생애나 신학이 아닌 그의 설교에 나타난 적용 부분을 살펴보려고 한다. 기독교의 대학자 히에로니무스(Hieronymus)는 헬라어로 된 오리겐의 누가복음 설교집을 라틴어로 번역했다. 그가 번역한 누가복음을 포함한 여러 라틴어 설교집은 중세 수도원에서 널리

---

[30] O. C. Edwards, *A History of Preaching* Volume 1 (Nashville: Abingdon Press, 2016), Ebook (Chapter 2 Origen the Original).; "With Origen, Christian preaching not only emerges into the clear light of history, it can also be said to take shape."

[31] Clyde E. Fant Jr, William M. Pinson, Jr., *성서의 설교에서 사보나롤라까지*, 세계명설교대전집 제 1 권, 맹용길 역 (서울: 성서연구사, 1986), 81.

[32] Origen, *The Song of Songs: Commentary and Homilies*, trans. and annotated by R.P. Lawson, ACW (Westminster, MD: Newman Press, 1957); The Song of Songs 1:1-11.

[33] Raymund Kottje, Bernd Moeller, *에큐메니칼 교회사 1 -고대교회와 동방교회*, 이신건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5), 168.

읽혔고, 필사본도 많이 전해진다.[34] 그가 남긴 누가복음 설교 가운데 4 장 14-20 절 설교의 적용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오르겐의 누가복음 설교는 대체로 첫째 문단에서는 본문에 대한 해석을 그리고 둘째 문단에서는 그 본문에 대한 적용을 다루고 있다. 다음은 누가복음 4 장 14-20 절 개역개정 본문과 영어로 번역된 오르겐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한 설교 중에서 첫째 문단과 적용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둘째 문단과 여섯째 문단이다.

> 14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15 친히 그
>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매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16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17
>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18 주의 성령이
>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 하고 19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20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Luke 4:14–20 On the passage from, "Jesus returned in the power of the Spirit," up to the point where it says, "And the eyes of all in the synagogue were fixed on him."

First of all, "Jesus, full of the Holy Spirit, returned from the Jordan and was led by the Spirit into the desert for forty days." When he was being tempted by the devil, since he was still to struggle against him, the word "spirit" is put down twice without any qualification. But, when he has fought and overcome the three temptations that Scripture mentions, then see what is written of the Spirit, emphatically and carefully. The passage says, "Jesus returned in the power of the Spirit." "Power" has been added, because he had trodden down the dragon and conquered the tempter in hand-to-hand combat. So 'Jesus returned in the power of the Spirit to the land of Galilee, and reports about him went out to the whole surrounding region. And he was teaching in their synagogues, and was glorified by all."

2. When you read, "He was teaching in their synagogues and was glorified by all," beware of thinking that only they are blessed, and of believing that you have been deprived of his teaching. If the Scriptures are true, then the Lord speaks not only there, in the congregations of the Jews, but today too, in this congregation. And Jesus teaches not only in this congregation, but in other gatherings, and in the whole world. He seeks instruments through whom he can teach. Pray that he will find me, too, well tempered and fit for singing! At the time when mortal men need prophecy, Almighty God seeks prophets, and finds them—for example Isaiah, Jeremiah, Ezekiel, and Daniel. So Jesus seeks instruments through which he can teach his word or instruct the people in the

[34] 오리게네. https://blog.daum.net/ydmin3392/8946877,.(10/12/2021).

synagogues and be glorified by all. Jesus is "glorified by all" more now than at that time when he was known in only one province.

6. But, when Jesus had read this passage, he rolled up "the scroll, gave it to the servant, and sat down. And the eyes of all in the synagogue were fixed on him." Now too, if you want it, your eyes can be fixed on the Savior in this synagogue, here in this assembly. For, when you direct the principal power of seeing in your heart to wisdom and truth, and to contemplating God's Only-Begotten, your eyes gaze on Jesus. Blessed is that congregation of which Scripture testifies that "the eyes of all were fixed on him"! How much would I wish that this assembly gave such testimony. I wish that the eyes of all (of catechumens and faithful, of women, men, and children)—not the eyes of the body, but the eyes of the soul—would gaze upon Jesus. For, when you look to him, your faces will be shining from the light of his gaze. You will be able to say, "The light of your face, o Lord, has made its mark upon us." To him is glory and power for ages of ages. Amen[35]

위에 제시한 오르겐의 누가복음 4 장 14-20 절 설교 가운데 14-15 절의 적용 부분인 둘째 문단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여러분이 "그가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뭇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시더라" 라는 구절을 읽을 때 그들만 복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의 가르침을 빼앗겼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만일 성경이 사실이라면 주님은 유대인의 회중 안에서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 회중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회중 안에서만 아니라 또 다른 모임 안에서 그리고 온 세상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가르칠 수 있는 도구를 찾으십니다. 그분이 나를 발견하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잘 조율되어 노래하기 적합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예언이 필요한 그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찾으시고 마침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자들을 발견해 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회당에서 사람들을 교훈하여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도구를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한 지방에서만 알려지셨던 그 때보다 지금 더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기서 그가 제시한 그 적용점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회중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오르겐의 설교를 듣는 회중과 다른 모임에서 그리고 온 세상에서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설교를 듣는 청중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라는 것이다. 그 예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열거한다. 이와 같이 합당한 도구에 의해

[35] Origen, *Homilies on Luke and Fragments on Luke*, ed. Thomas P. Halton, trans. Joseph T. Lienhard, vol. 94, The Fathers of the Church (Washington, DC: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2009), 130–133.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서 가르쳐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의 누가복음 4 장 14-20 절 설교 가운데 또 하나의 적용 부분이며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 여섯째 문단에서 그가 무엇을 촉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여섯째 문단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 예수께서 이 구절을 읽으시고 ‘두루마리를 말아 하인에게 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고정되었더라’ 이제 여러분도 원하신다면 이 회당에서, 여기 이 집회에서 구주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보는 주된 능력을 지혜와 진리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묵상할 때 여러분의 눈이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사람의 눈이 그에게 고정되었다”고 증언하는 회중은 복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그런 간증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모든 사람(새신자와 신자, 여성, 남성, 어린이)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혼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얼굴이 그의 시선에 비춰 빛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여, 주의 얼굴의 광채가 우리에게 그 표를 주셨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과 능력이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섯째 문단은 그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으로써 역시 한 구절을 설명하고 청중의 삶 속에 적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제 여러분도 원하신다면 이 회당에서 여기 이 집회에서 구주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다고 청중들을 초청한다. 그리고 그는 새 신자와 신자, 여성, 남성, 어린이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혼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그는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었다고 증언하는 회중이 복이 있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오르겐의 설교 일부를 살펴보았는데, 그는 이처럼 성경 본문을 을 해석하고 이어서 청중의 삶의 변화를 기대하며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 요한 크리소스톰 (John Chrysostom)[36]

요한 크리소스톰은 초기 기독교의 교부이자 제 37 대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대주교였다. 뛰어난 설교자였던 그는 중요한 신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끊임없이 기독교 교리에 대해 설전을 펼쳤다.[37] 그는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안디옥 학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체계적으로 성경의 내용들을 설교했고, 주로 문자적 해석을 했으며, 회중들에게 적절한 도덕적인 삶을 살도록 요구하였다.[38] 특히 죄에 대하여 가감없이 선포하므로 많은 청중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고 때로 일부 청중들은 그에게 저항하기도 했다. 그는 600 여편의 설교와 주석을 남겼다. 현존하는 그의 설교는 창세기 67 편, 시편 60 편, 이사야 6 편, 마태복음 91 편, 요한복음 87 편, 사도행전 55 편, 로마서 32 편, 고전 44 편, 고후 30 편, 에베소서 24 편, 빌립보서 15 편, 골로새서 12 편, 살전 11 편, 살후 5 편, 딤전 18 편, 딤후 10 편, 디도서 6 편, 빌레몬서 3 편, 히브리서 34 편과 여기에 독립된 성경 구절에 대한 설교들이 있다. 그는 한 편의 설교에서 어떻게 설교에 대한 적용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그의 창세기 설교집에서 일부를 발취해서 어떻게 설교가 구성되고 적용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 HOMILY 2 (John Chrysostom)[39] *On the beginning of creation: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

[36]요한 크리소스톰의 본래 그리스식 이름은 '요안네스 크뤼소스토모스('Ιωάννης Χρυσόστομος)이다.

[37]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 (10/17/2021)

[38]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 III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22), 933-934; Rudolf Brändle, *요한 크리소스토무스* , 이종한 역 (왜관: 분도출판사, 2016), 7, 14; Anthony C. Thiselton, *기독교 교리와 해석학*, 김귀탁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180-181.

[39] John Chrysostom, *Homilies on Genesis 1–17*, ed. Thomas P. Halton, trans. Robert C. Hill, vol. 74, The Fathers of the Church (Washington, DC: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1986), 37–38.

Today, looking at your dear faces, I am filled with great happiness. (26c) My happiness is not simply that of doting parents who are pleased to have their children milling around them and bringing them pleasure by some other nice behavior or attention to them. My joy and satisfaction now is keener than that, to see the way you have come together here in a spiritual assembly with such propriety, ardent in your desire to hear the divine sayings, spurning nourishment and longing for spiritual feasting, thus demonstrating in deed that word of the Lord which reads: (26d) "Human beings will not live on bread alone, but on every word coming from the mouth of God."

창조의 시작에 관하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며 큰 행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행복은 단순히 자녀가 주위를 맴돌게 하고 다른 좋은 행동이나 관심을 가져주는 것을 기뻐하는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기쁨과 만족은 그보다 더 뜨겁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합당하게 영적 모임에 모였는지를 보십시요. 신성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렬한 열망, 자양분을 버리고 신령한 잔치를 사모하며, 따라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제로 증명합니다.

(14) So, to make us more enthusiastic, take good heed of what has been said already, and with right teachings give great attention to caring for your life. (31d) Scripture says, "Let your light shine before men, so that they may see your good works, and glorify your father in heaven," in order that your life may conform with your teachings, and your teachings reveal your life. After all, "faith without works is dead," and works without faith are dead. For even if we have sound teachings but fail in living, the teachings benefit us nothing; likewise, if we take pains with life but are careless about teaching, that will not be any good to us either. So it is necessary to shore up this spiritual edifice of ours in both directions as Scripture says, "Everyone listening to my words and acting on them will be likened to a wise man." Notice how this person intends not merely to listen but to act, and to demonstrate his listening by his actions; this is the one called wise, the one (32a) giving evidence of deeds in the wake of words, whereas the one who stopped short at words was called a fool. And rightly so; after all, such a person built his house on sand, and so it could not withstand the onset of winds but quickly collapsed. You see, such people are lazy, not standing firm on the spiritual rock; the point of this parable is not a house or building, but people, those being buffeted by the onslaughts of some temptation. Under the name of wind, rain and waters, the text is suggesting to us the onset of temptations. Of course, people who are firm and watchful and restrained are made even stronger by these assaults: the more they are afflicted by adversity, the more their virtue is increased. But with the lazy and fainthearted, if only a gentle breeze of temptation touches them, immediately they shake and collapse, (32b) not from the strength of the temptations but from their own weakness of will.

(14) 그러므로 우리를 더욱 열심 있게 하기 위하여 이미 말한 것을 잘 삼가고 올바른 가르침으로 그대의 생명을 돌보는 데 많은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성경은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믿음이 없는 행함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건전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어도 그러나 생활에 실패하면, 그 가르침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생활에 근심하면서 그러나 근심하고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면 우리에게도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성경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 영적 건물을 양방향으로 견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이 사람이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행동으로 그의 경청을 나타내려는 의도를 주목하십시오. 이를 지혜자라

하고 말로써 행함을 보이고 말에 그치는 자를 우매자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결국, 그런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으므로 바람의 시작을 견디지 못하고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게으르며 신령한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이 비유의 요점은 집이나 건물이 아니라 사람, 곧 어떤 시험의 맹공격에 휩싸인 자들입니다. 바람, 비, 물이라는 이름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시험의 시작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확고하고 경계하며 절제된 사람들은 이러한 공격에 의해 더욱 강해집니다. 역경을 겪을수록 그들의 덕은 더 커집니다. 그러나 게으르고 마음이 나약한 자들에게는 부드러운 유혹의 바람만 만지면 유혹의 강함 때문이 아니라 자기 의지의 연약함으로 곧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15) So let us be sober and watchful, and prepared for everything, so that we may be well disciplined in prosperity and restrained under the onset of adversity, showing great prudence and constantly rendering thanks to the loving God. If we manage our lives this way, we shall enjoy much favor from on high and thus be able to pass our life on earth securely and have much confidence regarding the life to come. May we all reach it, through the love and goodness of our Lord Jesus Christ, to whom, with the Father and the Holy Spirit, be glory, sovereignty and praise, now and forever, for ages of ages. Amen.

(15) 그러므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모든 일에 대비하여 형통할 때에 연단을 잘 받으며 역경을 당할 때에 절제하며 슬기롭게 행하며 사랑의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이와 같이 생활하면 위로부터 많은 은총을 받아 이 땅에서 평안히 살 수 있고 내세에 대하여 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광과 주권과 찬송이 이제와 세세에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선하심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그 곳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아멘.

그의 설교는 본문의 의미만 주석하지 않고 청중들이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들을 말씀의 삶으로 초청을 하고 있다. 매 본문의 각 구절 마다 청중의 삶에 대한 적용을 하고 있다.

마지막 15 문단은 결국 청중들의 삶의 변화를 기대하며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초청한다. 여기서 적용점은 깨어 근신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형통할 때도 역경이 있을 때도 연단을 잘 받으며 절제하며 근신하여 사랑의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생활을 하면 위로부터 많은 은총을 받아 이 땅에서 평안히 살 수 있고 내세에 대하여 큰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희망을 불어 주는 적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의 설교는 교리적이면서도 동시에 윤리 도덕적 실천의 적용점이 있다. 크리소스톰은 그의 설교에서 다양한 측면으로 설교를 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 불신자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생명을 얻도록 하는 선포적 설교(Kerygmatic preaching). 둘째, 신자의 삶이 변화를 경험하고 변화되어가는 성화를 강조하는 교훈적인 설교(Didatic preaching). 셋째, 다양한 상황에 처한 성도를 치유, 위로, 격려하는 목회적인 설교(Pastoring preaching). 넷째,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이웃과 사회 전반에 나타나도록 선포하는 예언자적인 설교(Prophetic preaching)를 지칭한다[40] 바로 이러한 설교의 다양한 측면이 그의 설교 속에 가득 녹아 있다. 이렇게 그의 설교는 철저한 말씀 해석과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적용점이 있다는 것이다.

3. 어거스틴 (Augustin)[41]

어거스틴은 주후 4 세기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및 이탈리아에서 활동한 기독교 보편교회 시기의 신학자이자 주교로 개신교, 로마 가톨릭 교회 등 서방 기독교에서 존경받는 인물이다. 마틴 루터와 칼빈 등의 종교 개혁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42] 어거스틴 설교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계시된 성경의 권위에 확고하게 기초했으며 점점 더 말씀의 설명과 적용에 몰두했다.[43] 이제 어거스틴의 설교 일부를 적용의 관점에서

---

40 정준기, “요한 크리소스톰의 설교와 정치”, *광신논단*, 10 권 1 호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 계혁신학연구원, 2001.5.).

41 어거스틴의 그리스식 이름은 ‘아우구스티노스 힢포노스’(’Αυγουστίνος ‘Ιππώνος)이다.
42 아우구스티누. https://ko.wikipedia.org/.(11/20/2021)

43 Edwin Charles Dargan, *A History of Preaching*, vol. 1 (New York: Hodder & Stoughton, 1905), 59–60.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은 영어로 번역된 그의 요한복음 1 장 15-18 절 설교의 일부와 그에 대한 사역이다.

Homily III (JOHN 1:15–18)

John beareth witness of Him, and crieth, saying, This was He of whom I spake, He that cometh after me, is preferred before me, because He was before me. And of His fulness have all we received, and grace for grace. For the law was given by Moses, grace and truth came by Jesus Christ.[44]

Such are the rewards promised to us, my brethren. Let such be the object of your affections; such the kingdom for which you sigh; such the country for which you long; if you would attain to that with which our Lord did come; i. e. to grace and truth. But if they be bodily rewards which thou hast coveted at God's hand, thou art still under the law, and the law, for that very reason, thou wilt not fulfil. For when thou perceivest those temporal things poured forth in abundance upon men who offend God, thy footsteps falter, and thou sayest to thyself, Behold, I worship God, every day I run to church, my knees are worn with prayers, and yet I am always sick. Men commit murders, they are guilty of extortion, they overflow and abound, every thing goes well with them. Were then such as these the things thou didst seek at God's hand? Certain it is thou didst belong to grace. If the grace God gave thee is *grace*, because *gratuitous*, because He freely gave, then do thou freely love.

Do not love God for a reward; let Himself be thy reward. Let thy soul say, *One thing have I desired of the Lord, that will I seek after, that I may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all the days of my life, that I may behold the fair beauty of the Lord*. Fear not to be cloyed and surfeited. Such will be that beauty, that it will be always present with thee, and yet thou wilt never be satiated: or rather, thou wilt be always satiated and never satiated. For if I should say thou wilt not be satiated, this would imply hunger: and if, thou wilt be satiated, I am afraid lest I convey the idea of surfeit. Where there shall be neither surfeit nor yet hunger, I know not what word to use. But God hath it to make good to those who find no word wherewith to express it, yet believe that they shall receive it.[45]

"이것이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된 보상입니다. 그러한 것을 당신의 애정의 대상으로 삼으십시오. 당신이 탄식하는 그런 왕국; 당신이 갈망하는 그런 나라; 당신이 우리 주님이 오셨던 것과 같은 것을 성취하고 싶다면; 즉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네가 하나님의 손에서 참아내는 육체의 상이면, 너는 여전히 율법 아래 있어 율법을 지키지 못하리라. 이는 네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쏟아지는 현세적인 것들을 깨달을 때, 너의 발걸음은 흔들리고, 너는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보라,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는 매일 교회에 달려갈 때, 기도로 인해 내 무릎이 닳아 없어졌으나, 그리고 게다가, 나는 항상 아프다. 남자들은 살인을 저지르고, 그들은 강탈죄를 범하고, 넘치고 풍부하며 모든 일이 잘 됩니다. 그러면 네가 구한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런 것이 되었느냐? 확실히 당신은 은혜에 속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은혜라면, 거저 주셨으므로 거저 주셨기 때문에 당신은 값없이 사랑하십시오.

[44] S. Augustine, *Homilies on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and His First Epistle: Hom. 1–124, S. John 1–21 and Hom. 1–10, 1 S. John*, vol. 1 & 2, A Library of Fathers of the Holy Catholic Church, Anterior to the Division of the East and West: Translated by Members of the English Church (Oxford; London: John Henry Parker; F. and J. Rivington, 1848–1849), 32.

[45] S. Augustine, *Homilies on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and His First Epistle: Hom. 1–124, S. John 1–21 and Hom. 1–10, 1 S. John*, 46–47.

보상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보상을 되게하십시요. 네 영혼은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주하여 여호와의 꽤 아름다움을 보게 하실 것이라. 잔뜩 먹거나, 탐닉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그 아름다움은 언제나 함께 있을지라도 결코 배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 오히려 항상 배부르지만 결코 배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이 배부르지 않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굶주림을 의미할 것이고, 만일 당신이 배부르다면 나는 내가 탐욕스러운 생각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고프 지도 않고 아직 배고프지 않은 곳에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표현할 말를 찾지 못하면서도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라고 믿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실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거스틴은 요한복음 1 장 15-18 절을 절 별로 설명하면서 형제들의 삶에 설교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형제 여러분' 이라고 말하고 그들이 받은 은혜가 약속된 보상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은혜라면 감사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저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은 값없이 사랑하라고 말한다. 게다가 어떤 보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고 청중에게 촉구한다.

이처럼 어거스틴의 설교는 청중을 말씀으로 초청하면서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적용을 제시하는 설교이다. 뿐만 아니라 어거스틴의 시편(Psalm 31:9-15) 주석에서도 본문의 내용 속에 담긴 의미를 길어내어 그의 회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그는 강해 설교 뿐만 아니라 훨씬 더 통일된 강론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특히 크리스소톰의 강론보다 더 그렇다. 그는 구절을 하나하나 해석하고 마지막에 사람들의 삶에 실제적인 적용을 한다.[46] 이처럼 시편을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적용을 빼놓지 않고 청중의 삶의 변화를 기대하며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46] O. C. Edwards, *A History of Preaching* Volume 1 (Nashville: Abingdon Press, 2016) Ebook; "So Augustine brings it all out and makes it available to his congregation. And he does so in a homily that is much more unified than many expository sermons—certainly more so than a homily of Chrysostom, who would go through interpreting verse by verse and only apply the last verse commented upon to the life of the people."

제 2 절 종교개혁자들의 설교와 적용

종교 개혁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 가운데 루터, 칼빈, 쯔빙글리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루터는 종교 개혁의 가치를 높이 든 사람이며, 칼빈은 그 종교개혁의 연속선상에서 크게 활동했다. 특히 칼빈은 기독교의 교리를 완성해 놓은 신학자 혹은 설교자로 인식되어 왔다. 이들은 실제로 매우 뛰어난 설교자들로서 종교 개혁 시대를 대표할 만한 설교자들이다. 종교개혁자들은 대개 설교에 큰 비중을 두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즉, 계시를 증거하는 중차대하고 엄숙한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했다. 따라서 종교개혁가들의 설교를 잘 파악하면 현대 사회 속에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예배 속에 만연되고 있는 피상적인 설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루터와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청중은 하나님 자신을 듣는다고 확신했다. 제 2 차 헬베틱 신앙고백(1566) 제 1 장에서 쯔빙글리의 후계자인 하인리히 불링거는 개혁자들의 입장을 간결한 진술로 요약했다. 다음 문장에서 그는 이 진술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그러므로 이제 합법적으로 부름을 받은 설교자들에 의해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성경)이 선포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신자들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47] 이처럼 종교개혁시대의 설교가들은 설교 시간은

[47] Sinclair B. Ferguson and J. I. Packer, *New Dictionary of Theology*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0), 528; "This emphasis was shared by the Reformers. Both Luther and Calvin were convinced that,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이라고 인식했다. 그러므로 칼빈은 “복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이제 루터와 칼빈이 설교를 어떻게 적용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1. 마틴 루터 (Martin Luther)

마르틴 루터는 독일 출생으로 그 당시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교수였으며, 훗날 종교개혁을 일으킨 역사적인 인물이다. 본래 아우구스티노회 수사였던 루터는 로마 가톨릭교회의 면죄부 판매가 회개가 없는 용서, 거짓 평안(예레미야 예언자의 가르침을 인용함)이라고 비판했으며,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이신칭의를 주장했다. 면죄부 판매를 비판한 루터는 1517 년 95 개 논제를 게시함으로써 당시 면죄부를 대량 판매하던 도미니코회 수사이자 설교자 요한 테첼에 맞섰다. 교황 레오 10 세로부터 1520 년에 그 논제를 철회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오직 성경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가르침들을 거부했다.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 정문에 95 개 반박문을 게시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 사건을 기점으로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다. 루터의 종교 개혁의 시작은 당시 교회와 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다.[48] 루터의 설교는 약 2300 편정도 남아 있다. 여기서는 그의 갈라디아서 4 장 1-7 절 설교를 살펴보려고 한다.

---

when the message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is being proclaimed, God himself is heard by the listeners. In chapter 1 of the Second Helvetic Confession (1566) Heinrich Bullinger, the successor of Zwingli, summarized the position of the Reformers in one terse statement: *Praedicatio verbi Dei est verbum Dei*—the preaching of the word of God is the word of God. In the next sentence he interprets this statement as follows: ‘Wherefore when this word of God (=Scripture) is now preached in the church by preachers lawfully called, we believe that the very word of God is proclaimed, and received by the faithful.”

[48]마르틴 루터. https://ko.wikipedia.org/wiki/_ 12/20/2022

GAL. 4 *from the first to the seventh verse, inclusive* (Luther's sermon I)

1. Now I say, that the heir, as long as he is a child, differeth nothing from a servant, though he be lord of all; 2. But is under tutors and governors until the time appointed of the father. 3. Even so we, when we were children, were in bondage under the elements of the world:4. But when the fulness of the time was come, God sent forth his Son, made of a woman, made under the law, 5. To redeem them that were under the law, that we might receive the adoption of sons.6. And because ye are sons, God hath sent forth the Spirit of his Son into your hearts, crying, Abba, Father. 7. Wherefore thou art no more a servant, but a son; and if a son, then an heir of God through Christ.

Whatsoever we do of our own power and strength, that is not wrought in us by his grace, without doubt is a work of the law, and avails nothing toward justification; but is displeasing to God, because of the infidelity wherein it is done. He that trusts in works does nothing freely and with a willing mind; he would do no good work at all if he were not compelled by the fear of hell, or allured by the hope of present good. Whereby it is plainly seen that they strive only for gain, or are moved with fear, showing that they rather hate the law from their hearts, and had rather there were no law at all: an evil heart can do nothing that is good. This evil propensity of the heart, and unwillingness to do good, the law betrays, when it teaches that God does not esteem the works of the hand, but those of the heart.

Thus, sin is known by the law, as Paul teaches; for we learn thereby that our affections are not placed on that which is good; this ought to teach us not to trust in ourselves, but to long after the grace of God, whereby the evil of the heart may be taken away, and we become ready to do good works, and love the law voluntarily; not for fear of any punishment, but for the love of righteousness. By this means one is made of a servant, a son; of a slave, an heir.[49]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의 은혜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의심할 바 없이 율법의 행위요 의롭다 하심에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나 그것이 행해지는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불쾌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행위를 신뢰하는 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나 현재의 선에 대한 희망에 매혹되지 않는다면 그는 선한 일을 전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로써 저희가 오직 이익만 얻으려고 애쓰거나 두려워하여 마음으로 율법을 미워하고 도리어 율법이 없는 것을 더 좋아함을 나타내나니 악한 마음은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느니라. 마음의 이 악한 성향과 선을 행하지 않으려는 마음은 하나님이 손으로 하는 일을 보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하는 것을 귀히 여기신다고 가르칠 때 율법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는 바울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율법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질이 선한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로써 마음의 악이 제거되고, 우리는 선한 일을행할 준비를 하고, 자발적으로 율법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형벌을 두려워함이 아니요 오직 의를 사랑함이라 이로써 사람은 종이며, 아들, 노예, 상속인 됩니다.

[49] Martin Luther, "Sermon I: Gal. 4 From the First to the Seventh Verse, Inclusive," in *A Selection of the Most Celebrated Sermons of Martin Luther* (New York: S. & D. A. Forbes, 1830), 39–40.

그의 설교의 특징은 본문 해석과 의미 전달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마지막 적용 부분을 통하여 바울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설명하고 역시 청중들이 어떻게 율법을 접근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다. 청중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다는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우리가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행위로 무엇인가 이루는 것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한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의 기질이 어떠한 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리의 기질은 선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스스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때 우리의 마음의 악이 제거된다고 한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선을 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것이다. 바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선한 마음이 준비된다. 루터는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에게 가르치라는 메시지와 적용점을 이끌어 낸다. 즉, 어떠한 본문을 해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가르치라는 적용점을 만들어 낸다.

2. 요한 칼빈(John Calvin)

칼빈은 프랑스 북부 피카르디의 노용에서 태어났다. 칼빈은 파리, 오를레앙, 부르주 대학교에서 재학하는 동안 인문학, 신학, 법학을 공부했다. 그는 제네바의 종교 개혁의 지도자였으며, 칼빈주의 신학 전통의 원천이자 개신교 기독교 개혁 양식의 주요 원천이다.[50]

---

[50] D. F. Wright, “John Calvin,” ed. Timothy Larsen et al., *Biographical Dictionary of Evangelicals* (Leicester, England;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3), 109; “CALVIN, John (1509–1564), French Protestant Reformer, was the leader of the Reformation in Geneva, fountain-head of the Calvinist tradition of theology and chief source of the

칼빈의 신학은 그가 쓴 여러 권의 성경 주석이나 설교집, 논문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기독교강요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그의 여러 편의 설교 중에서 에베소서 2 장 8-9 절 설교를 적용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엡 2:8–9)
>
> 이제 우리는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 자신을 굴복시킵시다. 우리는 낮아져서 우리속에는 죄밖에 없으나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찾을 때까지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고 더욱더 뼈저리게 죄를 깨닫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으로 이미 어느 정도 우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그의 기쁘신 뜻대로 더욱더 우리 안에 증가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시며 우리를 성령으로 붙드시며 지배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노력은 그의 거룩한 율법을 따라 사는 생활을 위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의 기쁘신 뜻은 우리가 지은 수많은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신비한 능력으로 붙드셔서 이 세상에서 데려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완성의 기초이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역시 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고백합니다.[51]

본 논문에서는 그의 설교 가운데 적용 부분만 인용했지만, 연구자가 전체적으로 이 한편의 설교를 살펴본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그는 성경을 해설하면서 '우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므로 마치 청중 성경의 등장인물 가운데 한 사람처럼 여기게 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의 설교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구원과 믿음을 생각 할 수 없다."고 표현하기 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구원과 믿음을 생각 할 없다."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한다. 즉, 매번 본문을 해석하면서 그 시대의 등장

Reformed pattern of Protestant Christianity. None of the sixteenth-century Reformers has been as influential as Calvin in the shaping of evangelicalism in the English-speaking world. Lutheranism still displays a special reverence for Luther, but no Reformer is so widely read by pastors and theologians as John Calvin. Calvin was born at Noyon in Picardy in northern France. During his time at the universities of Paris, Orléans and Bourges (which included a second period at each of the first two), Calvin studied the humanities, theology and law (c. 1523–1533)."

[51] John Calvin, *칼뱅의 에베소서 설교*, 배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230.

인물보다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 지금 청중의 마음 속에 전해지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칼빈은 청중에게 그들이 듣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진리의 중요성에 대해 좀 더 날카롭게 깨닫게 하기 위한 설명(exposition)뿐만 아니라 묘사(description)와 예증(example)도 사용하였다. 칼빈은 그의 설교가 주된 교리 설교이든지 혹은 윤리적인 설교이든지 청중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책임 있게 설 수 있도록 일깨워준다."[52]

둘째로 그는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적용하도록 만든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그는 성경 해석 중에도 계속적으로 청중들에게 적용을 하지만, 끝으로 결단을 촉구하는 적용점을 만든다. 설교 마지막에서의 적용은 첫째, 하나님의 위엄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둘째,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고 더욱더 뼈저리게 죄를 깨닫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청중들의 삶이 변화를 가져오도록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 3 절 청교도 설교자들의 설교와 적용

청교도 (Puritan)라고 불리는 신앙인들이 펼쳤던 소위 청교도 운동은 16 세기 중반부터 17 세기 후반까지 지속되었다. 그들은 영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삶에 실천하려 한 신앙인들이다. 이 시기에는 많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전하고 거침없이 진리를 선포하는 시기였기에 이 시기를 설교의 황금기로 불렀다. 영국 국교회가 형식적인 종교생활에 빠져 있어서 그들의 삶은 영적으로 피폐하였다. 따라서

[52] 정상구, *칼빈의 설교에 나타난 설교 패턴과 특징들* (https://blog.daum.net/cjssusdmldkcla/7087339, 2012). 10/21/2021

청교도 운동은 이런 신앙에 회의를 느끼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신앙운동이다. 즉, 청교도들은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려고 힘썼다. 그 시기 청교도 목사들은 설교 사역과 설교문 출판을 통해 교회와 일반 청중을 개혁하려고 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일상생활을 변화시키는 것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이 시대는 영적으로 부흥을 일으키는 시대였다. 그리고 청교도 목사들은 설교에 매우 집중하며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과 사랑을 성경적 원리에 입각해서 활발하게 전했다. 그들의 설교는 체험적이며,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깊이 있는 설교였다.[53] 그 중에서 두 사람의 설교를 살펴보겠다.

1. 토마스 굿윈 (Thomas Goodwin)

토머스 굿윈은 영국 노퍽주의 야머스에서 태어났는데, 그 당시 그곳은 정부의 박해에 저항하는 청교도 세력의 영향 아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교도 부모에게서 태어난 그는 영국 청교도의 지도자이며, 신학자이고 설교자이다. 그는 종교적 독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며, 올리버 크롬웰 채플린으로 사역하였고, 의회에서 옥스포드 대학 안에 있는 모들린 칼리지의 학장으로 1650 년에 임명되었다.[54] 그의 설교 중에서 '고난이라는 악과 죄라는 악' (The Evil of affliction and the Evil of Sin)라는 제목의 히브리서 4 장 14-15 절 설교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 살펴 보려고 한다. 히브리서 4:14-15 절 적용을 어떻게 하는 지 살펴보겠다.

---

[53] Beeke, *설교에 관하여*, 205.
[54] Beeke, *설교에 관하여*, 299.

Now it is a certain rule, that whatsoever we receive from Christ, that he himself first receives in himself for us. And so one reason why this oil ran then so plentifully down on the skirts of this our High Priest, that is, on his members the apostles and saints, and so continues to do unto this day, is because our High Priest and Head himself was then afresh anointed with it.[55]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안에서 받는 것이 확실한 규례입니다. 그리고 이 기름이 우리의 이 대제사장의 옷자락에, 곧 그의 지체인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그토록 풍성하게 흘러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한 가지 이유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머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Now the same Spirit dwelling in Christ's heart in heaven, that does in yours here, and always working in his heart first for you, and then in yours by commission from him; rest assured, therefore, that that Spirit stirs up in him bowels of mercy infinitely larger towards you than you can have unto yourselves.[56]

이제 동일한 성령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에 거하시매 여기 너희 안에 거하시며, 항상 먼저 너희를 위하여 그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너희 안에도 역사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 영은 그 안에서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무한히 더 큰 자비를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조엘 비키(Joel beeky)가 말한 것처럼, 굿윈의 설교를 살펴보면 그의 설교는 주해적이며 신학적이라는 알 수 있다. 그리스도가 제사장적 역할에 대한 설교를 할 때에도 거기에는 깊은 정서와 체험이 드러난다.[57] 그리고 '이제'(Now)라는 말을 통해 그때 예수 그리스의 제사장적 사역을 청중에게 연결시키는 설교를 하고 있다. '이제'라는 말을 설교 중간중간에 함으로서 철저히 청중의 삶과 연결을 시키고 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머리가 되셨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적용한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청중에게 어떤 관계인지를 잘 적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의 설교는 주해적이며 신학적이면서 또한 그 주해와 신학적인 것을 청중의 삶에 적용시키는 적용이 어울어진 설교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번째 문단에서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55]Thomas Goodwin. *The Heart of Christ in Heaven Towards Sinners on Earth*, UNKNOWN. Kindle Edition, 659.

[56] Goodwin, *The Heart of Christ in Heaven Towards Sinners on Earth*, 679.

[57] Beeke, *설교에 관하여*, 312.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처럼 굿윈의 설교에서 적용점을 설교 중간 중간에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다.

2. 존 오웬 (John Owen)

영국의 신학자인 존 오웬은 의심할 여지 없이 영국 청교도 운동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일 뿐만 아니라 당대의 가장 위대한 유럽 개혁주의 신학자들 중 한 사람이며, 영국이 지금까지 만들어 낸 가장 훌륭한 신학 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는 1616 년 옥스퍼드 근처의 스태덤턴에서 지역 교구장이자 청교도 동조자인 헨리 오웬의 차남으로 태어났다.[58] "그는 1658 년 회중교회 교리 표준인 사보이 선언을 작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660 년 그는 고향인 스태드엄으로 은퇴해서 여러 논쟁적이고 신학적인 저술을 했다. 그 뒤 23 년 동안 비국교파의 지도자로서, 런던에 있는 교회를 담임하였고, 추방당한 목사들의 친구가 되었고, 회중교회 노선을 해석하였고, 성경주석과 경건서적들을 집필했다. 특히 히브리서 주석은 4,000 페이지나 되는 대작이다. 그의 수많은 저서들은 1850 년대에 24 권의 전집으로 발행되었다."[59] 그가 설교한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음" 이라는 제목의 시편 130 편 3 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 보실찐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를 중심으로 마지막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살펴 보겠다.

---

[58] C. R. Trueman, "Owen, John," ed. Timothy Larsen et al., *Biographical Dictionary of Evangelicals* (Leicester, England;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3), 494; "OWEN, John (1616–1683), English theologian, was without doubt not only the greatest theologian of the English Puritan movement but also one of the greatest European Reformed theologians of his day, and quite possibly possessed the finest theological mind that England ever produced. He was born in Stadhampton, near Oxford, in 1616, the second son of Henry Owen, the local vicar and a man of Puritan sympathies."

[59] John Owen, *나를 기념하라*, 이태복 역 (서울: 지평서원, 2008), .

>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죄에 대한 감각, 죄에 대한 인정, 자기 정죄)는 은혜받은 영혼이 깊은 곳에서 빠져나오는 첫 번째 행동의 내용을 구성한다. 이런 내용들은 호세아 14 장 1–3 절에서처럼 회복과 관련된 곳에서 모두 표현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목표하신 모든 경륜 가운데 위대한 핵심인 은혜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엡 1:6).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것은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인데(고전 1:31), 이는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은혜와 자비에 대한 보답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혼이 이런 상태가 되기까지 어떤 것도 은혜를 두드러지고 영광스럽게 할 수 없다. 은혜는 영혼이 매우 낮아질 때까지 높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은 영혼으로 하여금 은혜를 느끼면서 죄인 편에서 기대하는 가장 큰 일인 자비를 받을 수 있게 준비시킨다. 그리고 영혼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가 감당해야 할 모든 의무를 감당할 수 있게 준비시킨다. 이런 것은 영혼으로 하여금 부지런히,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게 한다.
>
> 만약 상황이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게 준비시킨다. 만약 상황이 더 좋지 못하다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것을 참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상태를 혐오하신다. 영혼은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오, 내가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내가 그의 얼굴의 미소를 볼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그로 자기 때를 택하게 하라. 내가 조용히 기다리며 그의 구원을 바라리라.” 그리고 이런 상태는 영혼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다. 그렇다. 이런 상태에서 영혼은 늘 기도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보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빠져 있는 곳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도록 하는 더 분명한 이유가 없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처를 가볍게 치료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고통을 주는 새로운 일이 생기면 또다시 과거에 있었던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상태로 쉽게 돌아가는 것이다.[60]

오웬의 설교는 신학적이면서 본문 해석적인 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나 그의 설교는 신학적이고 본문 해석적인 주해를 바탕으로 적용 질문을 하는 식으로 청중들에게 그 말씀을 생각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오! 내가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내가 그의 얼굴의 미소를 볼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그로 자기 때를 택하게 하라. 내가 조용히 기다리며 그의 구원을 바라리라.’ 그리고 이런 상태는 영혼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다. 그렇다. 이런 상태에서 영혼은 늘 기도하게 되어 있다.”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어떤

---

[60] John Owen, *죄 용서: 시편 130 편 강해*, 존 오웬 전집 vol. 5, 최인정 편, 박홍규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5), 116–117.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더 나가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은혜 기대어 확실한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 4 절 18-20 세기 설교자들의 설교와 적용

1. 조나단 에드워즈 (Jonathan Edwards)

미국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기독교 가정과 문화에서 자라났고 예일 대학교에서 공부했다. 그의 사역의 첫 번째 기간(1727~33 년 매사추세츠주 노샘프턴 회중 교회에서)은 상대적으로 무명의 시대였으며 그 뒤를 이어 큰 인기와 성공을 거두었다(1734~47 년). 거절당하고(1750) 작은 인디언 전초 기지(Stockbridge, 1751~57)에 사실상 매장되면서 끝이 났다. 그곳에서 그는 그의 가장 위대한 작품(의지의 자유, 원죄, 창조의 종말, 참된 미덕)을 했다. 그는 죽기 직전에 초기의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으로 부름을 받았다.[61] 그는 약 1,200 여 편의 설교를 남겼다. 그 중에서 그의 유명한 설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든 죄인"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그들의 실족할 그 때에 갚으리로다 "(Their foot shall slide in due time) 신명기 32:35 '그들이 실족할 그 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에 대하여 적용점을 살펴 보겠다.

> The use of this awful subject may be for awakening unconverted persons in this congregation. This that you have heard is the case of everyone of you that are out of Christ. That

[61] J. H. Gerstner, "Edwards, Jonathan (1703–58)," ed. Martin Davie et al., *New Dictionary of Theology*: Historical and Systematic (London;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InterVarsity Press, 2016), 287–288; "An American theologian and philosopher, Edwards was reared in a Christian home and culture, studying at Yale University. The first period of his ministry (in the Congregational Church, Northampton, MA, 1727–33) was a time of relative obscurity, followed by great popularity and success (1734–47), which ended with rejection (1750) and virtual burial in a little Indian outpost (Stockbridge, 1751–57) where he did his greatest work (Freedom of the Will; Original Sin; End of Creation; True Virtue). He was called to the presidency of the then nascent Princeton College shortly before his death."

world of misery, that lake of burning brimstone is extended abroad under you. There is the dreadful pit of the glowing flames of the wrath of God; there is hell's wide gaping mouth open; and you have nothing to stand upon, nor anything to take hold of: there is nothing between you and hell but the air; 'tis only the power and mere pleasure of God that holds you up. You probably are not sensible of this; find you are dept out of hell, but don't see the hand of God in it, but look at other things, as the good state of your bodily constitution, your care of your own life, and the means you use for your own preservation.

But indeed, these things are nothing; if God should withdraw his hand, they would avail no more to keep you from falling, than the thin air to hold up a person that is suspended in it. Your wickedness makes you as it were heavy as lead, and to tend downwards with great weight and pressure towards hell; and if God should let you go, you would immediately sink and swiftly descend and plunge into the bottomless gulf, and your healthy constitution, and your own care and prudence, and best contrivance, and all your righteousness, would have no more influence to uphold you and keep you out of hell, than a spider's web would have to stop a falling rock. [62]

-적용-

이 끔직한 주제의 사용은 이 회중 가운데 중생하지 못한 분들을 깨우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방금 들은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그리스도 밖의 세계는 비참한 불 못의 세계이며 지금 당신의 발 밑까지 타오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발 밑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무섭게 타오르는 불구덩이가 있습니다. 지옥문은 입을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당신을 지탱시킬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당신과 지옥 사이에는 옅은 공기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권능과 기쁘신 뜻 뿐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느끼지 못할 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지옥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삶과 육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쏟아 붓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은 참으로 아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면, 그런 것들은 당신을 더 이상 붙잡아주지 못합니다.

당신의 죄는 당신을 납덩이처럼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무게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옥에 떨어지도록 내버려두신다면, 당신은 즉각 그리고 신속하게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로 떨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건강한 육체와 당신의 지혜와 당신이 만든 최선의 계획, 그리고 모든 너의 의는 거미줄이 떨어지는 바위를 중단시키지 못하듯이 결코 당신을 떠받쳐주거나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조나단의 설교는 무서울 정도로 강력했고 청중의 심령을 찌르는 설교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설교 또한 22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11 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적용이다. 그는 청중의 마음을 지옥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지옥의

[62] Jonathan Edwards,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Early Modern Theology, Google Books, 2012), 11.

문으로부터 건짐 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전해진다. 이 설교 뿐만 아니라 다른 설교에서도 역시 적용의 비중이 설교 전체 구성에서 매우 높다. 그리고 생동감 있고 실제적으로 그리고 급하게 진행되는 적용의 실천을 요구한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성토한다. 지금 당신의 발 밑까지 지옥의 불이 타오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기쁘신 뜻을 붙잡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바라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이다.

조나단은 적용 질문을 통하여 청중이 실제적으로 메시지에 빠져 들도록 한다.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삶과 육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쏟아 붓고 있습니까?” 이렇게 수사학적 질문을 통하여 청중의 삶이 변화되도록 불같은 적용을 이끌어 낸다. 그것은 삶의 변화를 강력히 촉구하는 적용이라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여러 설교자의 적용에 관한 설교를 살펴보았지만, 조나단이야말로 가장 돋보이게 더 강력한 적용을 제시하고 있다.

2. 마틴 로이드 존스 (Martyn Lloyd-Jones)

로이드 존스는 남 웨일즈 카디프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마릴레본 문법학교 (Marylebone Grammar School)와 런던의 성 바돌로매 병원(St Bartholomew 's Hospital)에서 교육을 마쳤다. 그는 1926 년 고향인 웨일즈의 한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가 그의 설교에 은혜를 받아 그가 설교한 지 22 일만에 그 교회의 목사가 되어 달라는 청빙을 받게 되었다. 그는 교회의 청빙을 수락하고 의사에서 목사로서 첫 발을 내딛는다. 그가 의사의 직업을 내려놓고 목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그의 주변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그는 아베라본(Aberavon)에서 훌륭한 목회에 이어 동료로 부름을 받아서

런던 웨스트민스터 채플, 캠벨(G. Campbell)의 후임자가 되었다. 그는 그곳에서 30 년간 목회자로 섬겼다.

그는 Inter-Varsity Fellowship(현재 UCCF)에서 초기 리더십 역할을 했으며 Evangelical Library, London Bible College 및 International Fellowship of Evangelical Students 와 같은 새로운 복음주의 기관의 설립에도 참여했다.[63] 그는 은퇴 후에도 80 대가 될 때까지 영국에서 순회하면서 설교를 계속했다. 미국에서도 설교했다. 이처럼 훌륭한 설교자의 설교 한 편을 적용적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본문은 마가복음 9 장 28–29 절이다.

> Chapter 1 The Urgent Need for Revival Today And when he was come into the house, his disciples asked him privately, Why could not we cast him out? And he said unto them, This kind can come forth by nothing but by prayer and fasting (Mark 9:28–29).[64]
>
> 오늘 날 부흥이 절실히 필요함 그리고 그가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나 기도와 금식으로니라(막 9:28,29)
>
> Now, this is but the introduction to the theme that we are going to consider, but it leads me to ask this question: are you really concerned about the present position? Are you desperately concerned about it? Are you praying about it? Do you ever pray for the power of God in the Church today? Or are you just content to read the weekly newspapers which tell us about all these various efforts and to say, 'It is all right, the word is going on.' 'This kind cometh not forth but by prayer and fasting.' This word fasting is not in all the ancient manuscripts, but it implies not only literal, physical fasting, but concentration.
>
> The value of fasting is that it enables you to give your undivided attention to a subject. So what our Lord said to the disciples is this: you will never deal with this sort of problem until you have been praying, concentrating in prayer, waiting upon God, until he has filled you with the power. When you know you have got it, then you go out with authority. That is the way, and that is the only way. Surely no one should need to be convinced, today, that nothing short of a mighty outpouring of the Spirit of God is adequate to deal with our situation in this mid-twentieth century? Are you really still trusting to these other things? Here is the vital question. Have you seen the desperate need of prayer, the prayer of the whole Church?
>
> I shall see no hope until individual members of the Church are praying for revival, perhaps meeting in one another's homes, meeting in groups amongst friends, meeting together in churches, meeting anywhere you like, and praying with urgency and concentration for a shedding forth of the power of God, such as he shed forth one hundred and two hundred years ago, and in every other

---

[63] I. H. Murray, "Lloyd-Jones, David Martyn (1899–1981)," ed. Martin Davie et al., *New Dictionary of Theology: Historical and Systematic* (London;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16), 526.

[64] David Martyn Lloyd-Jones, *Revival* (Westchester, IL: Crossway Books, 1987), 7.

period of revival, and of reawakening. There is no hope until we do. But the moment we do, hope enters. Oh, when God manifests his power, it happens as it happened in the case of this poor boy. With apparent ease, in an effortless manner, the devil is exorcised, and the boy healed and restored to his father. When God arises, his enemies are scattered, that is the story of all the great revivals of history. But we shall not be interested in revival until we realise the need of 'this kind', the futility of all our own efforts and endeavours and the utter absolute need of prayer, and seeking the power of God alone.[65]

"이제 이것은 우리가 고려할 주제에 대한 소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이 질문으로 이끕니다. 당신은 현재 위치에 대해 정말로 걱정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것에 대해 필사적으로 걱정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것에 대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위해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노력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주간 신문을 읽고 '괜찮아, 소문이 돌고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 이런 종류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기도와 금식으로.' 이 금식이라는 단어는 모든 고대 사본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자 그대로의 육체적인 금식뿐만 아니라 집중을 의미합니다.
금식의 가치는 한 주제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기도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가 당신에게 능력을 채워주실 때까지 당신은 이런 종류의 문제를 결코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얻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당신은 권위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것이 방법이며,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날 20 세기 중반의 우리 상황을 처리하는 데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부어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무도 확신할 필요가 없습니까? 당신은 정말로 아직도 이 다른 것들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기도의 절박한 필요성, 온 교회의 기도를 보셨습니까?

나는 교회의 개별 회원들이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까지 희망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도 서로의 집에서 만나거나, 친구 사이에서 그룹으로 만나거나, 교회에서 함께 만나고, 원하는 곳에서 만나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그가 백년전 그리고 이백년 전에 흘린 것과 같이, 그리고 다른 모든 부흥과 각성의 기간에. 우리가 할 때까지 희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순간 희망이 들어옵니다. 오,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 그것은 이 불쌍한 소년의 경우에 일어난 것과 같습니다.명백하게 쉽게, 힘들이지 않은 방식으로 악마를 쫓아내고, 그 소년은 치유되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게 복귀했습니다.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그의 원수들은 흩어졌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모든 위대한 부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의 필요성, 우리의 모든 노력과 노력의 헛됨, 기도의 절대적인 필요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기 전까지는 부흥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청중에게 삶의 강력한 변화를 촉구하면서 동시에 이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에 의하면 부흥을 꿈꾸는 것은 기도와 금식이

[65] Lloyd-Jones, *Revival*, 19–20.

동반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적용 질문을 청중에게 던짐으로써 청중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경건한 삶을 향한 메시지를 던졌다. 우리가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순간 희망이 들어온다고 표현함으로써 강력한 적용 질문을 통하여 실제적인 모임과 장소에서 기도를 하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을 거침없이 쏟아 붙는다는 느낌이 든다. 바로 삶이 역동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적용의 호소력이라고 말한 수 있다.

제 5 절 현대 설교자들의 설교와 적용

1. 해돈 로빈슨 (Haddon W. Robinson)

해돈 로빈슨(Haddon W. Robinson)은 '강해 설교' 라는 말에 따라오는 친숙한 이름이다. 이 책은 1980 년에 출판돼 지금까지 대부분의 설교학 수업에서 주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로빈슨은 영미권의 10 대 설교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선발되었고, 로빈슨은 미국 뉴욕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댈러스신학교(Dallas Theological Seminary, Th.M., 1955), 남감리교대학교(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M.A., 1960)에서 수학했으며, 일리노이대학교(Univ. of Illinois)에서 커뮤니케이션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댈러스신학교에서 19 년간 설교학을 가르쳤으며 덴버신학교(Denver Seminary)에서 12 년간 총장으로 재직한 후 고든콘웰신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했다.[66]

---

[66] Marshall Shelley, "Introduction," in *Mastering Contemporary Preaching* (Portland, OR: Multnomah, 1989), 11–12.

그는 강해 설교의 정의에 기초해 설교의 중심 사상을 찾는 방법과 서론, 본론, 결론의 작성 등 설교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실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0 권이 넘는 저서를 출간한 로빈슨은 '말씀 탐구'(Discover the Word)라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커뮤니케이션의 전문가이다. 그는 'The Art & Craft of Biblical Preaching' 라는 책을 편집하므로 자신의 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설교자들의 글도 함께 수록하면서 강해 설교에 필요한 핵심들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처럼 설교에 대하여 많이 가르쳤고, 설교도 많이 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20:1-16 중심으로 했던 설교에서 적용점 일부를 살펴보겠다.

> Matthew 20:1–16.
> "The Great Wage Dispute"
>
> Years ago, when our son Torrey was ten or eleven, he came home early one Saturday afternoon from playing with his friends. His mother was frantically trying to get things ready for company that evening. Without being asked, Torrey got out the vacuum cleaner and vacuumed the whole house. Bonnie told me about it when I got home. I usually paid the kids fifty cents for a job like that. When I asked Torrey what I owed him, he replied, "Dad, I just wanted to help." I pulled out my wallet and gave him two dollars. He took it and said, "Dad, I like being in this family. You gave me more than I would have asked for and more than the job was worth!" He honored me more than he knew. Over thirty years have passed since that incident, but I've never forgotten it. How satisfying to have a son who loves you and pitches in and doesn't take your generosity for granted.[67]
>
> 몇 년 전 우리 아들 Torrey 가 10 살 또는 11 살이었을 때 어느 토요일 오후 일찍 친구들과 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날 저녁 회사에 갈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토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진공 청소기를 꺼내 집 전체를 진공 청소기로 청소했다. 보니는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나에게 그것에 대해 말했다. 나는 보통 그런 일에 대해 아이들에게 50 센트를 지불했습니다. 내가 토리에게 빚진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그는 "아빠, 저는 그저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갑을 꺼내서 2 달러를 주었다. 그는 그것을 받아 "아빠, 저는 이 가족이 좋아요. 당신은 내가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고 그 일의 가치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는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존경했다. 그 일이 있은 지 삼십 년이 넘었지만 나는 그 일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관대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아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만족스러운 일입니다.[68]

---

[67] Haddon W. Robinson, *Biblical Preaching: The Development and Delivery of Expository Messages*, Third.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14), 179.

[68] Robinson, *Biblical Preaching: The Development and Delivery of Expository Messages*, 178–179.

해돈 로빈슨은 설교 적용부에서 예화를 사용해서 적용을 시도한다. 즉,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두에게 동일하게 미치고 있음을 말한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므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마 20:15,16)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적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조건없이 무한하게 공급되는 은혜이다.

바로 해돈 로빈슨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관대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아들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만족스러운 일입니다.” 라는 적용을 함으로써 청중들이 감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즐거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친근감 있고, 감동이 있는 적용점을 사용한다.

2. 팀 켈러(Timothy J. Keller)

팀 켈러는 펜실베이아 알렌타운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라났다. 켈러는 버크넬대학, 고든콘웰신학교에서 수학했으며,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신학자이며 기독교 변증가이다. 그는 뉴욕시 리디머장로교회(Redeemer Presbyterian Church)의 설립 목사이다. 그는 1989 년 아내 케시 사모와 3 명의 아이들과 함께 리디머 장로교회를 개척하여 20 년 동안 다양한 젊은 직장인들을 지도하며 대형교회로 성장시켰다. 그는 여러 도시에 교회를 개척하고, 도시문화 속에서 신앙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나 자료들을 출판하는 ‘리디머 시티 투 시티’(Redeemer City to City)의 이사장도 맡고 있다. 10 년이 넘는 기간 동안 100 개 도시에서 430 개 교회를 개척을 도왔다.[69] 그 뿐만 아니라

[69] Timothy Keller, *태어남에 관하여*, 윤종석 역 (서울: 두란노, 2020), 서문.

그는 많은 저서와 설교를 역동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그의 설교 가운데 한편을 적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기도만큼 위대한 것은 없다"

>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엡 1:15-19)[70]
>
> 바울은 요즘 크리스천들이라면 기도 제목 리스트에 올려놓고 요청했음직한 조건들을 구하지 않았다[71] 바울은 크리스천이 반드시 얻어야 할 결정적인 응답은 변화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실재를 강렬하게 감지하지 못한다면 좋은 환경은 지나친 자심감과 영적인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72] 크리스천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때를 정해 성실하고, 헌신적이며, 열성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다… 성경은 크리스천들에게 하루, 아니 평생 기도가 삶의 구석구석에 배어들게 하라고 가르친다.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이다(살전 5:17). [73]
>
> 기도는 너무 엄청난 것이어서 성경 어디를 펴든 금방 찾아볼 수 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계신 자리마다 어김없이 기도가 있기 때문이다. 주님은 어디나 계시고 한없이 크신 분이므로 기도 역시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 수 밖에 없다."[74]

팀 켈러는 성경 본문의 의미와 해석을 기초로 하여 설교 중간 중간에 크리스천의 구체적인 삶의 방향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크리스천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점을 곧바로 알려주면서 그에 대한 적용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는 '당신'(you)이라는 표현 보다는 '크리스천'(Christian)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청중 모두를 설교 안으로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일어날 인격적인 변화를

---

[70] Timothy Keller, *기도*, 최종훈 역 (서울: 두란노, 2015), 49.
[71] Keller, *기도*, 50.
[72] Keller, *기도*, 23.
[73] Keller, *기도*, 62.
[74] Keller, *기도*, 50.

기대한다. 또한 그는 그의 설교 마지막 부분에 적용을 배치하지 않고 오히려 설교의 흐름을 따라 설교 중간에 자연스럽게 청중의 삶이 역동적으로 변화할 것을 기대하며 그에 합당한 적용을 한다. 따라서 팀 켈러는 청중에 대한 세밀한 상황 분석 및 소통과 함께 논리적인 소양과 철학적인 지식을 모두 동원하여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적용을 제시하여 그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설교자라고 할 수 있다.

제 6 절 구약에서 현대까지 설교자들의 설교에서 적용에 대한 평가

지금까지 구약의 걸출한 지도자와 선지자로부터 현대 유명 설교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남긴 설교를 적용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는데, 그 적용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약시대 족장과 선지자들의 설교에서 적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포하는 형식이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으로 적용되는 설교였다. 그러므로 구약의 설교는 한마디로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적용을 중심으로 하는 설교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세례 요한에서부터 여러 사도들에 이르기까지 신약시대에 활동했던 설교자의 대부분은 구약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서 빗나간 삶을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라는 설교였다. 즉, 삶 속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따라서 신약시대의 설교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영위하고 영적인 성숙과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춘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설교였다. 다시 말해서 신약시대의 설교는 추상적인 이론이 아닌 실천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적용에 중심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교부들의 설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성경을 한 절 한 절 해석하면서 그것을 곧바로 삶으로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넷째, 종교개혁시대의 설교자들은 매우 역동적이고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으며 설교가 예배의 전면에 내세워져 있어서 가히 설교중심의 예배라고 할 만큼 설교에 충실하고 풍성했던 시기이다. 종교개혁가들은 '오직 말씀으로'(sola Scriptura) 라는 기치 아래 설교를 풍선과 같이 공중에 띄워 놓지 않고, 직접적으로 청중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도록 변화를 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청교도들의 설교에서부터 현대 설교자들의 설교도 마찬가지로 청중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설교였다. 물론 이 시기에는 설교에서의 적용 방법이 더 다양하게 등장한다.

제 4 장

오늘날 설교에서 적용의 다양한 접근 방법

제1절 설교에서 적용에 대한 이해

1. 설교에서 적용의 의미

설교는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3,500 년 전부터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본문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신앙 공동체에 전하고 적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설교는 '그때 그리고 그들'(there and them)에게 주어진 본문을 '여기 그리고 지금'(here and now)의 청중에게 연결하는 행위이다.[75] 존 브로더스(John A. Broadus)에 따르면, 설교에 있어서 적용은 그저 우리의 가르침에 추가된 "부록 같은 것"이 아니다. 적용은 우리의 설교에 "수행되어야 할 주된 과업이며, 모든 설교의 목표와 같다.[76] 그리고 적용은 설교의 내용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설교를 듣는 청중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깨닫게 하는 것이다.[77]

데비드 비어만(David Veerman) 이 적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였는데, 적용은 두 가지 질문 즉, "그래서 무엇을? (so what?)" 과 "지금은 무엇을?(now what?)"에 대답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첫 번째 질문은 "이 구절은 나에게 왜 중요한가?"라는 의미이며, 두 번째

[75] 정창균,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설교*, 54.

[76] John A. Broadus, *A Treatise on the preparation and Delivery of sermons*. Ed. Edwin C. Dargan (Jew York: A.C. Armstrong & Son, 1898), 245.

[77] D. M. Lloyd-Jones, *설교와 설교자*, 정근두 역 (서울: 복있는 사람, 2008), 318.

질문은 “나는 오늘날 이것과 관련해서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라는 의미이다.[78] 설교에서 적용은 설교자가 청중 개개인이 설교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응시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을 청중 개개인에게 적용하는 수사적 과정이다.[79] 대니엘 웹스터(Daniel Webster)는 힘주어 말하기를 “누가 내게 설교할 때 나는 그가 설교를 개인적인 문제로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이터(J. W. Etter)는 “적용이 없는 설교를 하는 설교자는 마치 그의 환자에게 일반적인 건강에 대한 강의만 하고는 처방전을 써주는 것을 잊어버린 의사와 같다”[80] 고 했다. 청중이 설교를 들을 때 대부분 그 설교에 대한 적용을 하기 위해 마음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설교자는 적용을 만들어서 청중이 삶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81]

그러므로 설교자가 해야 할 일은 성경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말씀을 해설하여 청중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즉, 적용의 목적은 청중에게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려는 것이다. 설교를 듣는 청중의 변화는 곧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이다.[82] 설교는 성경을 해설하는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기대하고 전해야 한다.

---

[78] Haddon Robinson, Craig Brian Larson, *성경적인 설교와 설교자*, 전의우 역 (서울: 두란노, 2006), 424.

[79] James Braga, *설교 준비*, 김지찬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4), 245.

[80] 장두만, *강해설교 작성법* (서울: 요단출판사, 1993), 109.

[81] Donald Sunukjian, *Invitation to Biblical Preaching: Proclaiming Truth with Clarity and Relevance*, Invitation to Theological Studies Series (Grand Rapids: MI, Kregel Publications, 2007), 111; “In order for relevance to occur and godliness to form, it is the speaker who will have to make the applications. The listeners usually will not make them for themselves.”

[82] 정창균,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설교*, 55.

2. 적용의 중요성과 적용의 종류

데이비드 비어먼은 설교에서 적용하는 훈련이 부족하다고 한탄하는 많은 설교자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사람들이 말씀을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다.[83] 연구자는 이 부분에 상당히 동의한다. 왜냐하면, 설교자는 성경을 해석하고 청중의 삶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서 이해시키기 위하여 여러가지 예화와 적용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때로는 성경 내용을 해석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어려운 예화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친숙하지 않는 이야기나 성경보다도 더 이해하기 어려운 철학이야기나 새로 나온 책 중에서 자신이 감동받은 부분을 인용할 경우에 설교자 자신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 따라서 예화나 적용은 청중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해야 하는 데 그것은 바로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문제나 이야기 가운데서 찾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로널드 알렌(Ronald H. Allen)은 주제 설교자들을 위한 다양한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안한다. 그는 설교를 균형 있게 배분하는데, 15-25%정도는 주제를 설명과 주제에 대한 신학적 평가를 하며 15-25%정도는 적용을 한다. 그리고 나머지 5-15%는 도입과 결론을 배분한다. 이처럼 본문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부분만큼이나 적용에도 동일한 비중을 두는 것을 볼 수 있다.[84] 하지만 설교할 때 적용이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

[83] Robinson, Larson, *성경적인 설교와 설교자*, 전의우 역 (서울: 두란노, 2006), 423.

[84] Paul Scott Wilson. *The Practice of Preaching*: Revised Edition (Kindle Locations 1893-1900). Kindle Edition. “Ronald J. Allen revives a variety of intriguing possibilities for topical preachers: 1. Deductive form of description, evaluation, and application-(a) cation-(a) introduction: 5-15% of the length, (b) statement of the main

한다. 적용이 설교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는 하지만 설교자는 성경 해설과 적용을 균형 있게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청중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설교자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성경 해석을 바탕으로 하여 그들의 삶 속에 그것을 실천하게 하는 적용이 필요하다.[85]

그러므로 설교에서 성경 해석의 비중만큼이나 적용의 비중도 매우 심사숙고해야 한다. 바우만(John D. Baumann)은 설교는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그 설교의 승패가 달려 있다고 한다.[86] 그러면 이처럼 설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적용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퍼킨스(Perkins)은 설교에 있어서 적용을 강조하는데, 그는 설교의 적용을 정의하기를. “적용은 성경에서 적절하게 끌어낸 교리를 시공간이란 상황과 회중 안의 사람들을 향해 적절한 방식으로 다루는 기술입니다.”[87] 라고 말한다. 그리고 적용의 방법 두가지를 제시한다. 첫째는 정신적인(이론적인, Mental application) 적용이다. 이것은 생각과 관련이 있으며 교리나 책망을 포함한다.[88]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

point: 5%, (c) description of the topic: 15-25%, (d) theological evaluation of the topic: 15-25%, (e) application: 15-25%, (f) conclusion: 5-15%.”

[85]정장복, “설교의 적용이란 말씀의 현장화이다”, 아이굿뉴스, 2016 년 6 월 15 일(http://www.igoodnews.net).

[86] John D. Baumann *현대 설교학 입문*, 정장복 역.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8), 359.

[87] William Perkins, *The Art of Prophesying*. Pavlik Press. Kindle Edition, 661; “Application is the skill by which the doctrine which has been properly drawn from Scripture is handled in ways which are appropriate to the circumstances of the place and time and to the people in the congregation.”

[88] Perkins, *The Art of Prophesying*, 785; “Mental application is concerned with the mind and involves either doctrine or reproof (2 Tim. 3:16, 17).”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딤후 3:16,17). 둘째 적용의 종류는 실제적인(Practical application) 적용이다. 이것은 생활 방식 및 행동과 관련이 있으며 교육 및 교정이 포함된다. 실제적인 적용은 우리가 가정과 국가와 교회의 맥락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교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격려와 권면이 모두 포함된다.[89] 그래서 정신적인 적용과 실제적인 적용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적용점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적 혹은 이론적으로 도전을 받고 격려와 교훈을 받아서 이것을 삶을 실천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적용은 성경에서는 말한 것처럼 '바른 교훈'과 '책망'이라고 할 수 있다.

더 구체적인 적용을 나열해 보자면, "웨스트민스터 예배지침" 과 디모데후서 3 장 16-17 절과 퍼킨스의 적용을 종합해 볼 때 대략 6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90] (1) 교훈적 적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리적으로 성도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다. (2) 책망적 적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것들을 성경의 참된 진리를 통해 찾아내서 거짓된 신앙의 모습과 잘못 습득된 교리로부터 돌아오도록 책망하는 것이다. (3) 권면적 적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포된 메시지가 청중의 삶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여 명령과 의무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4) 경고적 적용은 인간이 죄 때문에 얼마나 비참하게 되고 인간의 본성이 파괴되었는지 그 심각성을 인식하여 죄를 미워하고 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죄로부터 돌아서서 회개하도록 촉구한다. (5) 위로적 적용은 인생의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자로 말미암아

[89] Perkins, *The Art of Prophesying*. 785; "Practical application has to do with life-style and behaviour and involves instruction and correction. Instruction is the application of doctrine to enable us to live well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the state and the church. It involves both encouragement and exhortation (Rom. 15:4)."

[90] 안모세, *윌리엄 퍼킨스의 산상수훈(팔복) 설교연구: 적용을 중심으로*, 신학석사 논문 (서울: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33.

제자의 삶을 추구하며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위로하는 것이다. (6) 경건적 적용은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의무와 뜻을 따라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더욱 굳센 믿음으로 경건에 이르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브라이언 채플에 따르면, 다섯 가지 질문을 통하여 은혜와 의무를 적절히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그것은 '무엇, 어디서, 누가, 왜, 그리고 어떻게' 라는 질문들이다.[91] 또한 정장복 교수에 의하면, 아래 네가지 방법은 청중에게 쉽게 이해와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적용이다.[92] 첫째, 설명적 적용은 성경 본문을 해석하여 그 의미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것은 친절하고 자세하게 청중들의 마음에 적용이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예화를 통한 적용은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현장이 쉽게 연결될 수 있는 예화를 활용하는 것이다. 셋째, 암시적 적용은 설교자들이 설교에서 적용을 할 때 말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현상이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일이나 혹은 영화, 책 등을 통하여 얻어진 이야기를 해 줌으로서 마치 그림을 보여주는 것처럼 적용을 하는 것이다.[93] 넷째, 간증적 적용은 감동적인 간증 등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간증자에게 어떻게

---

[91] Robinson, Larson, *성경적인 설교와 설교자*, 435.

[92] 정장복, *설교의 적용이란 말씀의 현장화이다*, 정장복 교수의 설교학교 15: http://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9824 (11/12/2021)

[93] Scott Hoezee, *Actuality: Real Life Stories for Sermons That Matter*, The Artistry of Preaching Series (Abingdon Press, Kindle Edition); "When preachers talk about the need to ponder the power of "show" to follow up on a sermon's "tell" sections, this is exactly what is meant, and it is the kind of practical, everyday application of the gospel that is sought by all who preach sermons and most certainly by those who listen to sermons as well."

역사하셨는지 생생한 삶의 신앙적인 경험을 들려주고 보여주는 방법이다. 이처럼 적용에는 여러가지 적용방법과 다양한 청중을 향한 접근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청중의 상황과 처지에 맞는 적당한 적용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제 2 절 설교에서 적용 대상과 청중의 상황

적용 대상은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 모두 이어야 하며 그 누구도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먼저는 설교를 전하는 자 자신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그래서 적용을 할 때 "우리", "크리스천",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직접적인 대상에게 적용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94] 이처럼 설교의 대상은 설교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며 더 나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성경에서는 모든 민족들과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결국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설교자는 예배당 안에서도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지만, 예배당 밖에서도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산에서, 바다 한가운데서, 해변에서, 병자들 앞에서, 귀신 들린 자 앞에서, 로마 재판관들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지도자 앞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백성들이 들어야 하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으로 옮겨져야 한다.

---

[94] 김서택, *강해설교의 기초* (서울: 홍성사, 2001), 263.

1. 일곱가지 청중의 성격과 영적 상태의 유형

설교자는 적용을 할 때 청중의 상황을 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성경 본문의 내용을 청중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함이다. 청중을 생각하지 않는 설교는 설교가 지향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95] 퍼킨스는 "설교의 기술"(The Art of Prophesying)에서 청중에게 적용을 대입할 때 일곱가지로 적용방식을 제시한다.[96] 설교자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되는 퍼킨스의 일곱 가지 적용 방식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성경에 무지하고 가르침을 안 받는 자들

이들은 먼저 말씀의 교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여호사밧은 유다 성읍들에 레위사람들을 보내어 백성을 가르치고 우상 숭배에서 떠나게 하였다(대하 17:9). 이 준비는 부분적으로는 그들의 태도와 성품을 알기 위해 그들과 토론하거나 추리하는 것이어야 하며, 부분적으로는 명백한 죄를 책망함으로써 그들의 양심이 일깨워지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그들이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사도행전 9:3-5, 16:27-31, 17:17, 17:22-24). 그들이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는 희망이 있을 때 비로소 요점에 초점을 맞춘 기본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95] 김창훈, *강단 회복을 위한 제안: (삼위) 하나님 중심적 설교의 회복*, 복음과 실천신학 제 27 권(2013 년 봄호), 305.

[96] William Perkins, *The Art of Prophesying*. Pavlik Press. Kindle Edition. 674.

주어져야 한다(예를 들어, 바울이 아테네에서 한 것처럼, 행 17:30, 31). 이런 가르침에 긍정적인 반응이 없다면 더 자세하고 포괄적인 방법으로 설명해야 한다.[97]

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지만 무지한 사람들

우리는 교리문답을 통해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야 한다(참조, 눅 1:4; 행 18:25, 26). 교리문답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 가르침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해와 기억에 모두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교리문답의 내용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하며, 그 기본 원칙의 요약이어야 한다(히 5:12). 믿음의 원리는 인간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에 모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관련이 있는 성경적 진리이다. 그것이 거부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바랄 근거가 없다. 그러한 원칙에는 여섯 가지가 있다. 회개, 믿음, 세례(즉, 성례전), 안수(즉, 말씀 사역에 대한 유대 관계), 부활, 마지막 심판(히 6:1-3).

다. 지식은 있지만 결코 겸손하지 않은 사람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고전 7:8-10)이라고 부르는 회개의 기초가 세워지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다. 이러한 감동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율법의 사역이 필요하다. 이것은 마음 속에 진정한 통회를 가져오거나 양심에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것은 그 자체로 건전하고

[97] Perkins, *The Art of Prophesying*, 686.

유익한 것은 아니지만, 죄악된 완고함을 억제하고 마음이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데 필요한 치료법을 제공한다.[98]

라. 이미 겸손한 자

여기서 우리는 이미 행해진 겸손이 완전하고 건전한 것인지 아니면 이제 막 시작되어 아직은 가볍고 피상적인 것인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사람들이 빨리 위로를 받는 것보다 적절하게 받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그렇게 하면 용광로에 던져진 철이 차가울 때 예외적으로 단단해지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나중에 단단해질 수 있다.[99]

마. 이미 믿는 자

우리는 그들에게 다음의 것들을 가르쳐야 한다. (1) 복음: 칭의, 성화, 인내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 (2) 율법: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새로운 순종의 열매를 맺는 방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다(롬 8:1, 딤전 1:1). 1:9). (3)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율법의 저주로 위협을 받아서는 안되지만, 율법에 위배되는 남아 있는 죄는 여전히 강조되어야 한다. 아버지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아들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적절한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의 저주에 대한 묵상은 참된 신자들을 고무하여 죄악된 생활로 하나님의 자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그리고 겸손을 증가시켜야 된다. 우리의

[98] Perkins, *The Art of Prophesying*, 702.
[99] Perkins, *The Art of Prophesying*, 729.

성화는 아직 부분적이다. 남아 있는 죄를 멸하려면 우리는 항상 율법에 대한 묵상과 우리의 죄에 대한 자각으로 시작하여 복음 안에서 안식을 얻어야 한다.[100]

바. 믿음에서 넘어진 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나 생활 방식에서 부분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벗어났을 수 있다. 믿음의 실패는 복음 교리에 대한 지식이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지식의 실패는 부차적인 교리든 근본적인 교리든 오류에 빠지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의 오류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교리를 설명하고 가르쳐야 한다. 우리는 회개의 교리와 함께 그것의 중요성을 그들에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바울이 갈라디아서 6 장 1 절(참조, 딤후 2:25)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형제 사랑으로 이것을 해야 한다.[101]

사. 신자와 불신자가 있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전형적인 상황이다. 성경적 한계가 지켜지는 한, 율법이나 복음에서 어떤 교리라도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요 7:37). 이것은 선지자들이 설교에서 악인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메시아의 구원을 약속할 때 한 것이다.[102]

결론적으로 설교에서 적용은 근본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원리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주어져서 그 말씀이 삶으로 표현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

[100] Perkins, *The Art of Prophesying*, 743.
[101] Perkins, *The Art of Prophesying*, 743.
[102] Perkins, *The Art of Prophesying*, 781.

가르침의 목적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다.[103] 그러므로 설교에서 적용은 설교 본문에 입각해야 한다. 그리고 설교자의 마음에는 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설교자는 청중에게 부탁하기보다 선포해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용을 통해서 순종을 요구해야 한다.

더욱이 앞에서 제시한 퍼킨스의 청중의 분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반드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그분의 자비를 삶의 적용점으로 제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원죄와 자범죄가 동반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죄에서 벗어 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선포함으로써 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적용을 해야 한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두가지 측면이 있다. 즉, 자범죄에 대한 회개와 성화를 위한 말씀 적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청중의 상황과 처지를 살피고 본문에 합당한 적용을 함으로써 청중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며 설교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설교를 통하여 은혜 받은 자가 실천해야 할 합당한 삶으로 적용을 인도해야 한다.

[103] 류응렬, *Pastor as Preacher*: 설교, 설교 강의안, 2019. 36.

제 5 장

적용이 있는 설교와 적용이 없는 설교에서 청중의 반응 대한 설문조사와 분석

목회와 신학에서 한국 교회 담임 목사 578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교사역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설교 사역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으로 '전달력'(24.6%)을 꼽았다. 이어 '자료 준비 부족'(24.5%), '적용'(22%), '예화'(1.47%), '본문 이해 및 해석'(7.8%) 순이었다.[104] 이처럼 적용 부분에 대한 부족을 느끼는 경우가 세 번째 자리를 차지한다. 설교에서 본문에 잘 맞는 적용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중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늘 인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적용을 계발해 나가야 하겠다.

제 1 절 설교에서 적용에 대한 청중의 반응에 대한 설문 조사

연구자는 약 40 명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각자 본인들이 출석하는 교회 설교자의 설교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음과 같은 질문지를 사용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1. 적용이 있는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자신의 삶이 변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2. 적용이 없는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3. 적용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삶이 변화된 사건이 있습니까?
4. 적용이 있는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5. 적용이 없는 설교를 들을 때 스스로 자신에게 어떻게 설교를 적용합니까?

---

[104] 최원준, *설교 사역 설문조사 결과 발표*, 월간 목회와 신학 2007 년 4 월호,(서울, 두란노서원, 2007); "조사 기간은 2007 년 1 월 20 일부터 2 월 5 일까지 보름 동안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율은 95% 신뢰 수준에서 ±3.9%입니다. 이는 두 결과의 차이가 7.8% 이상이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 설문 조사는 특정 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적어도 교회를 출석하며 설교를 들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서면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이제 그 설문 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를 살펴보겠다. 이처럼 설문을 통해 얻게 된, 설교에 대한 청중의 구체적인 반응에 대한 통계가 여러 설교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1. 설문 조사의 결과에 대한 통계

가. 첫 번째 질문

첫번째 질문 '적용이 있는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자신의 삶이 변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에 대한 응답자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1) 적용을 통하여 삶의 변화에 도움이 되었다(38 명, 95%); (2) 적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보통이다 (1, 명, 2.5%); (3) 도움이 안 된다(1 명, 2.5%).

첫째로 그 가운데서 '적용을 통하여 삶의 변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05] 응답자 가운데 A 는 설교 마지막의 적용점들은 주중 생활에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다리를 놓아준다고 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은 생각, 사고, 행동, 습관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간다. 이웃 사랑에 대한 개념을 지적으로 잘 인식하고 있더라도 그것을 이웃 사랑으로 곧장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그것은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설교에서 적용점을 제시해주는 것이 삶을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응답자 가운데 B 는 구체적으로 예시를

[105] 응답자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익명 예컨대, A, B, C 등으로 표기하였다.

보여주는 적용이 설교를 듣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피력하였다. 이처럼 적용이 있는 설교는 삶을 변화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비유하자면, 식탁 위에 앉아서 완성된 요리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식사 기도를 마치고 따뜻한 온기가 나는 요리를 입 안으로 가져가기만 하면 된다. 예를 들어 '사랑하라!'는 설교를 들었다고 가정해보자.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이 있다면, 청중의 입장에서 예배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게 알고 집으로 향할 수 있다. 라스베가스는 카지노와 호텔 등 관광산업이 매우 발달한 도시이다. 그러나, 지하에서 살아가는 노숙자들이 있다. 그들은 홍수에 대비해서 건설한 하수도 터널에서 살아가기에 관광객들의 눈에나 주민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라스베가스에 사는 청중에게 설교를 할 경우 적용을 통해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는 지하의 노숙자를 사랑하자고 구체적으로 제안한다면, 설교가 더욱 현실적으로 와 닿을 것이다. 이렇게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 노숙자들이 마약을 끊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면 실천적인 설교 적용이 성도의 눈을 뜨게 한 것이다. 더불어 천국 복음의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다.

C 응답자는 적실한 적용이 설교를 들은 이후 큰 감동을 일으키고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도전 의식을 불러 일으킨다고 말했다. 적용이 엉뚱하거나 너무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 그다지 크게 와 닿지는 않는다. 적용이 있는 설교를 들을 때 삶의 변화에 도움이 되는 핵심은 그 적용이 얼마나 적실한가에 있다.

둘째로 '보통이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이다. 이들은 적용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분명하게 의견을 밝히지 않고 유보한 그룹이다. D 응답자는 적용이 적실하면 당연히 도움이 많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방해가 될 때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청중의

삶과 형편은 다양하고 설교자의 경험과 환경은 한정되어 있기에 구체적인 적용을 추구하기보다는 성도 스스로 적용을 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성도의 성숙을 위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설교 시간은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신자 스스로 바른 교리적 기준과 성경적인 테두리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적용 능력' 을 키워주는 것이 설교자가 할 일인 것이다.

셋째로 단호하게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이다. E 응답자는 "적용이 있는 설교가 삶의 변화에 큰 영향력이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이렇게 응답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롭게 전하는 메시지라면 특별히 적용이 필요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나.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적용이 없는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1) 수업시간 혹은 성경공부 하는 느낌이다(13 명, 32%); (2) 공허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느낌이다(19 명 47%); (3) 설교를 내 마음 대로 자유롭게 적용해야 하는 느낌(8 명, 14%)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로 응답했는지 요약을 해보겠다.

첫째로 '수업시간 혹은 성경공부 하는 느낌이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A 응답자는 "성경 본문을 머리로 깨닫고 알기만 하는 지적인 수준에 머문다는 느낌이 듭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B 응답자는 "적용이 없는 설교를 들을 때는 마치 강의를 듣는 느낌이 듭니다. 다시 말해 성경공부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라고 말했다. D 응답자는 약간 뜬 구름 잡는 이야기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는 질문이 생긴다고 했다. 이런 설교는 성경을 잘 해석을 하기는 하지만 지식적인 설교에 그치고 적용이 없기에 변화의 힘이 약할 수밖에 없다.

둘째로 '공허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느낌이다.'라고 응답한 경우이다. E 응답자는 적용이 없는 설교를 들을 때는 정말 어렵게 느껴지고 공허할 때도 있는데, 이처럼 적용이 없는 설교는 속이 비어 있는 어떤 느낌이라고 말했다.

F 응답자는 지식적으로는 정리가 잘 되었지만,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막막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 그래서 적용이 없는 설교를 듣고 나면 뭔가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G 응답자는 "삶과 동떨어진 남의 이야기나 책 이야기처럼 그냥 흘려서 듣게 됩니다'라고 응답했다.

셋째로 '설교를 내 마음 대로 자유롭게 적용해야 하는 느낌이다,'라고 응답한 경우이다. H 응답자는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데 좀 더 광범위하게 되거나, 자기 중심적 적용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대답했다. I 응답자는 적용이 있으면 구체적인 '적용'과 삶 속에서 '점검'이 가능하다는 유익이 있지만, 적용이 없는 설교는 때로는 청중의 입장에서 좀 더 '자유로운 적용' 가능하게 하는 유익이 있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 J 응답자는 적용이 없는 설교를 들으면서 스스로를 발견하고 설교를 통해 깨달은 점을 적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적용을 할 경우에는 그 때 그 시간에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생각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다. 세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적용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삶이 변화된 사건이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자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1) 변화된 경험이 있다 (35 명, 87.5%); (2) 경험이 없다'(2 명,5%); (3) 잘 기억나지 않는다(3 명, 7.5%).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청중들의 구제적인 의견을 살펴보겠다.

첫째로 '변화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이다. A 응답자는 우연히 집 근처에 있는 교회의 새벽기도회에 참석했는데, 하루 종일 물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 그는 재수를 하고 있었는데, 모의고사 성적이 오르지 않아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렸고, 학력고사도 6 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다시 공부에 집중하라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훗날 대학에 합격했던 경험이 있다고 했다. B 응답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설교를 듣고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을 했다고 한다. 즉, 카톡 메세지로 관심과 배려의 말 한마디를 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카톡 메세지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다고 한다. 간단하지만 설교를 통해 깨닫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실천한 좋은 예처럼 보인다.

D 응답자는 부목사로 섬기는 교회에서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설교 중에 제시된 예화는 별거하고 있는 부부의 이야기이다. 화해하기 위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전화를 했는데 아내가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들은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놓치고 만 것이다. 그러므로 화해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하라는 것이다. 그 설교를 들은 응답자는 곧바로 자신의 삶에 적용했다고 한다. 그 응답자는 직전 교회에서 자신을 힘들게 한 교회 리더로 인해 불미스럽게 사임을 했는데, 바로 그 리더에서 전화를 걸어서 그 동안의 안부를 묻고 그

때 자신이 잘못했거나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용서해 달라고 말하며 화해를 이룬 적이 있다고 한다.

둘째로 '경험이 없다.' 또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경우이다. E 응답자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경험이 없습니다."라고 설문 조사에 응했다. 그리고 F 응답자도 역시 특별히 생각나는 것이 없어서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말을 했다. 이와 같이 대답한 응답자들은 구체적인 이유나 설명이 없이 다만 적용을 통하여 삶이 변화된 경험이 없거나 혹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라. 네 번째 질문

네 번째 질문 '적용이 있는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에 대한 응답자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1) 설교 내용과 적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어려웠다(14 명, 35%); (2) 적용의 내용이 나와 상관없는 적용이라 어려웠다(15 명,37.5%); (3) 어려운 적이 없었다(11 명, 27.5%).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다.

첫째로 '설교 내용과 적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어려웠다.'라고 응답한 경우이다. A 응답자는 적용이 있는 설교를 들을 때 본문의 주제와 다르게 적용되는 내용을 접하면 설교자에게 살짝 의구심이 들고 마음에 와 닿지가 않는다고 했다.

B 응답자는 본문 따로 적용 따로 갈 때 설교를 듣기가 힘들고 어떨 때는 반발심도 생긴다고 했다. 그래서 "저 목사가 자기 뜻을 설교를 통해 성도들에게 심으려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주님의 말씀이 개인의 유익을 위해 남용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힘들었다고 했다. 이 부분은 응답자의 대부분이 응답자 A, B 와 비슷하게 대답했다.

둘째로 ‘적용의 내용이 나와 상관없는 적용이라 어려웠다’라고 응답한 경우이다. C 응답자는 적용점이 명확하더라도 삶과 동떨어져 있거나 강요받는 느낌을 받으면 오히려 마음 문이 닫히게 된다고 했다. 어떤 교회를 방문했는데 설교 제목이 '5 만불입니다.'였다고 한다. 즉, 5 만불을 헌금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는데, 1 분이라도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다고 한다.

D 응답자는 주일 성수를 하라고 하면서 무조건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설교하는데, 자신은 교도관으로 24 시간 2 부제 근무를 하고 있어서 가지 못할 때 가 많아서 자신의 실생활과 맞지 않아서 힘들었다고 한다.

셋째로 ‘어려운 적이 없었다’라고 응답한 경우이다. E 응답자는 개인적으로는 적용이 없는 설교를 들을 때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힘들다고 느끼지는 않는다고 대답했다. F 응답자는 적용의 유무에 따라 말씀이 힘들게 들렸던 기억은 없다고 했다. 설교의 적용에 어려움이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대부분은 응답자 E, F 유사하게 대답했다.

마. 다섯 번째 질문

다섯 번째 질문 ‘적용이 없는 설교를 들을 때 스스로 자신에게 어떻게 설교를 적용합니까? ‘에 대한 설문자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 (1) 스스로 막연하게 적용을 찾으려고 노력하거나 또는 본문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낸다(20 명, 50%); (2)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서 혹은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주시길 기도하고 생각한다(9 명, 22.5%); (3) 다시 말씀을 보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묵상한다(11 명, 27.5%). 이러한 통계의 바탕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첫째로 ‘스스로 막연하게 적용을 찾으려고 노력하거나 또는 본문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낸다.’라고 응답한 경우이다. A 응답자는 설교를 들을 때 새롭게 알게 된 성경 해석의 내용만을 기억할 때가 많은데, 가끔은 일상생활 속에서 유사한 환경에 처했을 때 그 내용을 스스로 실천적으로 재해석을 해서 적용하기도 한다고 했다.

B 응답자는 “저에게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 찾을 때도 있고, 그냥 말씀 해석에 집중할 때도 있다.”라고 응답했다. C 응답자는 “스스로에게 어떤 설교를 적용하기보다 나로 통해 일하실 그 분을 잠잠히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다시 새롭게 하고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으면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라고 응답했다. D 응답자는 “저에게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 찾을 때도 있고, 그냥 말씀 해석에 집중할 때도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적용이 없는 설교를 듣게 되면 내 삶 속에서 말씀과 연관 지으려 노력하고 스스로 애를 써본다. 잘 안되지만, 가끔 아주 가끔은 스스로 적용점을 찾아 갈 때가 있다. 이처럼 성경말씀 듣는 것으로만 끝내는 사람도 있지만, 잘 안되더라도 스스로 애써본 사람이 있다.

둘째로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서 혹은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주시길 기도하고 생각한다.’라고 응답한 경우이다.

E 응답자는 “선부른 적용보다 말씀 그대로 전달될 때 성령께서 역사 하셔서 더 깊은 은혜와 감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한다고 한한다. F 응답자는 “이 부분은 신앙의 신비이자 성령님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신자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교리적 틀이 잡히고 이성과 상식 안에서 또는 요한복음 3 장의 바람과 같으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요, 길에 빛이 되리라고 믿습니다.”라고 말하며 성령의 역사를 기대한다고 한다.

G 응답자는 "우선 그 날 설교 본문과 설교 요지가 무엇인지를 되짚어 봅니다. 설교를 필기하며 들었다면 더 큰 도움이 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서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갑니다."라고 대답했다. 또한 말씀을 듣는 중에 생각나거나 깨닫게 된 것을 적용(실천)하려고 노력하거나 하나님께서 한 주간 나의 삶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생각나는 것을 적용한다고 말한 응답자도 있었다.

셋째로 '다시 말씀을 보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묵상한다.'라고 응답한 경우이다. G 응답자는 "다시 말씀을 보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묵상합니다."라고 대답했다. H 응답자는 "다른 분의 설교로 대체해서 채운다."라고 말하면서 말씀 안에서 적용을 찾으려고 한다고 했다. 그래서 우선 그 날 설교 본문과 설교 요지가 무엇인지를 되짚어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교를 듣고 성경을 다시 찾아보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적용이 없는 설교는 청중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바. 설문 조사를 통한 결론

1) 적용이 있는 설교

응답자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5 퍼센트는 설교에서 적용이 많은 도움이 되고 삶을 변화시키는데 필수적이라고 응답했다. 청중의 반응은 일차 청중인 그 당시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신 있게 예시하고 전달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도들은 대개 성경에 대하여 많이 알고 깨달음이

있기는 하지만, 비록 잘 알아서 깨달은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자세하게 다시 짚어 주기를 원하며, 더 나가서는 잘못 가고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설교를 통하여 안내해주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던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항상 묵상 하라는 것이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보고 말 것이 아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연구자가 신학 교육을 받을 때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배웠다. 그런데 그 성경 고전어를 배울 때 단어도 암기하고 문법도 배웠다. 그런데 그 고전어 지식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열심히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배워서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학점을 이수하기에 급급했다. 그러나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지를 구체적으로 안내를 받은 후에는 그간에 배웠던 것들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큰 유익을 주었다. 마찬가지로 청중은 설교 한 편을 통하여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설교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적용은 성령님 하신다고 말하는 설교자들도 있다. 연구자는 이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설교자의 설교를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성도의 삶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설교에 맞는 예화 혹은 적용을 잘 준비해야한다. 그런데 막연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이유로 성경 말씀만 전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폭넓게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을 좁게 해석한 것이다.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당연히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해서 설교의 한 부분 즉, 성경 해석 혹은 의미 전달만 해서는 안 된다. 마치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구체적으로 청중의 삶의 변화를 기대하며 전했듯이 그렇게 설교를 준비해서 전해야 한다. 성령님은 바로 그런 설교를 통해 더욱 충만하게 역사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늘의 언어를 땅에 언어로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처럼 설교자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의 실생활의 언어와 방법으로 전달할 때 더욱 더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또한 설교자가 사용하는 적실한 적용은 청중으로 하여금 그 설교를 삶에 적용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적용점을 통하여 성도가 더욱 더 믿음이 성장하고 삶의 변화를 경험했다는 조사도 적용의 중요성을 지지해준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의미만 전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적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므로 더욱 효과적인 설교가 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2) 적용이 없는 설교

설교에 적용이 없으면 청중이 그 말씀을 자기 삶 속에 실천하여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할 수 없고 설교를 그저 그 성경을 안내해 주고 설명해 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청중의 대부분은 설교자가 분명한 실천 의지를 심어주지 않고, 현실에 필요한 실제적인 적용 방법을 제시해주지 않으면 혼자서 본문에 맞는 적용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스스로 적용점을 찾다가 그냥 포기 버리거나,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 연구 조사가 있다. 따라서 이런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적인 추구만 자극하게 되는 셈이다.

적용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의 변화를 쉽게 성취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허무감과 공허감에 빠지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그 공허감과 허무감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도 있다. 신구약 성경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설파하고 있다. 예수님도 공생애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에게 말씀을 가르치되 지킬 수 있도록 하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가르치는 데서 머물지 말고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적용점을 찾아서 제시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106] 그리고 적용이 없을 때 청중은 설교를 듣고 나서 다시 그 설교를 생각하고 묵상해야 하는 이중적인 고민에 빠져들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적용이 없으면 따로 시간을 내거나 혹은 개인적인 묵상을 통하여 그 설교의 적용점을 찾아야 하는 고민을 안겨준다. 이렇게 은혜의 확신 보다 고민을 주게 된다. 물론 성경에 익숙한 사람은 알아서 적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연구자가 조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적용점을 찾는다고 하였다. 고로 효과적인 설교를 듣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혹자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따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닌지 반문한다. 그러나 설문 조사 결과 그렇게 따로 생각하고 묵상해서 적용을 하기까지 여유로운 시간이 없기에 설교를 듣고 곧 잊어버리게 된다. 즉, 현대인은 적용이 없는 설교를 듣고 적용을 직접 찾아내기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쾌하게 설교를 하고 적용을 함으로써 삶이 변화를 촉구하는 설교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106] 유성두, *설교에서 적용이란 무엇인가?,* (https://blog.daum.net/sea39/16902790, 잔잔한 파도, 2008).

결론적으로 설교자가 청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선포를 꿈꾼다면 설교에서 적용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설교에서 적용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에 설교에서 적용이 없다는 말은 바른 표현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설교에서는 어떤 방식이든지 청중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적용의 방법 혹은 적용의 종류가 달라서 그렇게 비치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적용이 없는 설교는 없다. 왜냐하면, 설교자가 청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적용의 다양성을 생각해 볼 때 대부분의 설교자는 적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것이 구체적이냐 덜 구체적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리므로 본 연구자는 본 설문 조사를 통해 얻게 된 결론은 설교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적용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제 2 절 연구자가 작성한 적용이 있는 설교문 예시

제목: 경배

본문: 마태복음 2 장 1-12 절

서론: 메리크리스마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탄절이 되면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맘때가 되면 여행을 계획하거나 혹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파티를 계획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다 좋은 계획입니다. 요즘 이메일을 열어 보면 이런 광고가 자주 보입니다. 행복한 홀리데이를 맞이하려면 저렴하고 좋은 호텔이나 여행지를 선택하라고 말입니다. 또한 요즘 성탄절에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크리스마스'라는 말 보다는 '홀리데이'(Holly Day)라는 말입니다. 텍사스에는 이런 법이 있다고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Merry Christmas)법이 2014 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법은 텍사스 내 공립학교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교사들이나 학생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라는 인사를 해도 소송을 당하거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장한 법이다.

또 학교에서 아기 예수가 마구간에 태어나는 장면을 묘사한 조형물(nativity)을 설치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을 발의한 텍사스 주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텍사스 주민들에게 이 법을 환기시키며 "이 법은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누구를 축하해야 하는지,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지를 기억나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법은 다른 주로도 확산되어 테네시와 미주리 주에서도 비슷한 법을 채택했을 뿐만 아니라 앨라배마, 조지아, 인디아나 주 등에서도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나온 배경은 미국에서 매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벌어지는 이른바 ‘크리스마스 전쟁’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 전쟁은 종교 분리를 근거로 미국사회에서 기독교를 제거하려는 무신론자들과 이를 지키려는 기독교계의 충돌을 말합니다.”(월드 미션 2014).

이 성탄절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감사와 찬양이 있는 그런 성탄절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지 않고 경배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반면에 그의 별을 보고 따라와 그에게 경배하러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경배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겠습니다.

유대인의 왕께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

>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마 2:1-2)

누가복음 2 장 8-14 절을 보면,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이 어둠이 짙은 들판에서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천사로부터 전해 듣고서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 예수님께 찾아가 경배했습니다. 그들의 경배 방법은 메시지 전달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었습니다. 또한 동방 박사의 경배 방법도 역시 메시지 전달과 보배합 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가운데서 이런 경배를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동방박사들이 별의 움직임을 따라 아기 예수가 있는 곳으로 찾아와 경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 이 시기는 주전 30 년경 헤롯 대왕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헤롯 대왕의 부친은

헤롯 안디바 2 세입니다. 에돔, 에서와 야곱과 관련이 있는 이두매 출신의 유대인으로 로마 제국과 좋은 관계로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로마의 원로원으로부터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로마가 인정하는 유대인의 왕이 버젓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별을 좇아서 동방에서부터 왔습니다. 바로 그분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그 곳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신 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의 별" 곧 예수의 별을 보고서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동방의 박사들은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로, 그들이 하늘의 별들을 관찰함으로써 세상의 변화를 감지하는 천문학자들이요, 점성술사들이라 추측합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특이한 별을 "그의 별" 즉, 유대인의 왕의 탄생일 가리키는 별로 인식했습니다. 곧 그 별은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징조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별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고 하는데, 그럼 경배란 무엇인가요?

שָׁחָה(솨하) – '굽히다', '엎드려 절하다' 라는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행위를 뜻한다(삿 7:15). προσκυνέω(프로스퀴네오)–'프로스'(…에게)와 '퀴네오'(입맞추다)의 합성어로 종이 주인에게, 신하가 임금에게 존경과 절대 복종의 의미로 발에 입맞추는 고대 풍습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예배하는 자의 참된 마음 자세를 강조한 표현입니다(눅 4:8).[107] 이방 땅에서 그의 별을 따라 이동해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바로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엎드려 절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거룩한 입맞춤을 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이스라엘의 거리는 약 1000km 가 넘는 거리입니다.

질문 적용: 이방인들은 먼 거리 그리고 여행중 위험을 무릅쓰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러 왔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자세로 그분을 경배합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예수님을 경배합니까?

권면적 적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엎드려 절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이 왕은 일반 왕이 아닙니다. 바로 이사야 7 장의 메시아 예언이 약 740 년 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일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기다린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 앞에 경배로 화답해야 합니다. 경배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죄 씻음이 있습니다. 바로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거리에 예배의 자리가 있어도 이렇게 경배하려는 마음으로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배하는 마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엎드려 절하는 마음으로 또한 그의 거룩함에 입맞추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자리에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경배자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가려고 굳게 마음을 먹을 때 경배를 막는 모든 장애물은 사라질 것입니다.

---

[107] 가스펠서브, *라이프 성경사전*, 49-50.

우리가 참된 경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배의 자리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 경배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3,4)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분께 경배하기 위해 동방에서부터 왔다는 박사들의 말을 듣고 헤롯과 모든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헤롯 대왕의 통치가 로마 정부의 도움과 이스라엘 종교지도자들의 협조로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소식은 그들을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혼란에 빠뜨리기도 남을 만큼 충격적인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왕위를 빼앗길까 봐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 아들과 아내, 처남, 장모까지 죽인 자입니다. 그런 그가 다급한 마음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 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게 되어 있는 지를 물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소동하는 것은 왕권이 교체될 때마다 이어지는 전쟁과 혼란의 공포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5,6)

헤롯 대왕의 질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바를 그대로 보고합니다. 그들은 메시아 탄생 장소에 대한 예언으로 보는 미가 5 장 2 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미가는 주전 722년 북 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즘에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 북 왕국 이스라엘의 멸망과 남 유다가 언약에 불순종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남 유다가 장차 받게 될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한편으로 남은 자들의 회복을 말하므로 소망을 선포하였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분이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입니다. 물론 마태는 미가 선지자가 말한 것과 약간 다르게 기술합니다. '에브라다'는 '유대 땅'으로, '작을 지라도'는 '작지 아니 하도다'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언급합니다. 이것은 천사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목자로서 양을 돌보는 사역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때로는 외부의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도 내놓아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목자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질문 적용: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여러분에게 혼란입니까? 아니면 기쁨입니까? 만약 기쁨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기쁨을 표현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권면 적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언약한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미가 선지자 뿐만 아니라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메시아가 언약한 대로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더 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3일만에 부활하셨고 40일동안 그의 부활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눈앞에서 승천한 것처럼 다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선지자들의 글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토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 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르침을 통하여 굳건한 믿음 즉, 그 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지금도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평안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 갈 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경배는 바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경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 말씀에 기초한 그런 경배를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기뻐하며 보배합으로 경배하는 자

>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7,8)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은밀히 불러 새로운 왕, 곧 예수가 언제 태어났는지 알아보려 했습니다. 동방박사나 헤롯은 그의 별이 나타남과 메시아의 출생일을 같은 때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신학자들은 여러가지 정황상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태어난 지 벌써 1 년 정도나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헤롯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정말로 경배하려는 의도보다 그의 목표는 그가 있는 곳을 알아내 앞으로 자신과 경쟁할지도 모를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싹을 제거하려 한 것입니다. 천사들이 동방박사들에게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라고 13 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헤롯의 목적은 바로 아기 예수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9-11)

동방박사는 마치 선원들이 별자리를 보고 방향을 찾아가는 것처럼 별을 따라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 별이 초자연적 현상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그 가족이 있는 곳을 찾았을 때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경배를 마친 그들은 자기 들이 가져온 보물 상자를 열어 아기 예수께 왕권을 상징하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시 45:8,72:10,10; 사 60:6)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예물은 그 당시에 고가의 명품으로 종종 왕에게 선물로 드렸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자들은 예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박사들은 “엎드려 아기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물을 드려 예수님의 오심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적용: 혹시 헤롯처럼 진실한 마음 없이 경배를 하는 경우가 우리 안에 없는지요? 만약에 있었다면 이제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경배해야 할까요?

권면 적용: 우리는 이제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참된 성탄절의 의미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변을 운전을 하다가 보면 집집마다 예쁘게 성탄 장식을 해 놓은 것을 봅니다. 저는 이 성탄 장식을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났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앞마당에 성탄 장식을 한 것을 알기에 그것을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탄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탄 장식을 통해서 성탄의 메시지를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장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산타클로스나 지팡이 장식보다 별, 빛, 구유, 아기, 동방박사의 행렬 등의 예수 탄생의 메시지가 담긴 장식이 좋습니다. 그런 시각적 이미지가 그 길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성탄의 좋은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지켜 나가지 않으면 그 누가 지켜 나가겠습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홀리데이라고 말해도 우리는 끝까지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쁜 성탄절이라고 말해야 합니다.[108] 그래서 우리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쁜 성탄절입니다. 지금의 성탄절 분위기는 예수님의 나심을 경배하는 기대감보다는 연말 연시의 분위기를 자극하고 상업수단으로 코드가 많이 맞춰져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크리스마스에 즉 '해피 크리스마스'라는 기독교적 용어를 사용해서 인사하는 것이 싫어서 이제는 '해피 홀리데이' 라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실제적으로 성탄절에 대한 기대가 확연하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경배를 기대하는 성탄절과 홀리데이를 기대하는 성탄절로 말입니다. 성탄절은 진정한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한 경배가 빠진 성탄절을 성탄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세대는 이러한 유행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유행을 따라가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성탄의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머리로는 말씀을 너무나 잘 알지만,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는 자들은 성탄의 진정한 기쁨을 알 수 없습니다. 진정한 성탄의 기쁨은 동방 박사들처럼 영광의 왕을 찾아 경배하는 자들,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자들에게

---

[108] 영어 어휘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christ)'와 '매스(mass)'의 합성어로, '크라이스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 라는 뜻의 히브리어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말인 '그리스도'를 다시 영어식으로 읽은 것이다. '매스'는 라틴어 동사 'mitto(보내다)'가 명사화되어 만들어진 'missa(파견)'에서 따 온 것으로, 가톨릭의 전통적인 예배 의식인 미사를 뜻한다. 즉,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의미인 셈이며, 흔히 하는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Merry Christmas)'도 '즐거운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뜻이 된다. 이런 어원으로 인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기독탄신일'로 표기되어 있다.

주어집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진정으로 경배하는 자에게는 성탄의 기쁨도 커질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인들은 이맘 때가 되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즉,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오심과 영광 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경배하기를 기대합니다. 성탄절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제 6 장

결론

조엘 비키(Joel R, Beeke)는 그의 책에서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나 책에서 얻은 지식만으로는 체험적인 설교자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품게 된다. ‘과거의 사람들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체험적인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더 나은 체험적인 설교자가 되기 위한 노력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히 적용하는 일에 힘쓰는 데 있다.”라고 말했다.”[109] 설교에서 적용은 단지 토론의 부속물이거나 부차적인 부분이 아니라 수행해야 할 중요한 작업이다. 스펄전 역시 적용이 시작되는 곳에서 설교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다니엘 웹스터(Daniel Webster)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설교할 때 나는 그가 그것을 개인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설교자는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청중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며 의무라고 주장했다.[110]

---

[109] Joel R. Beeke, *설교에 관하여*, 551.

[110] John Albert Broadus, *A Treatise on the Preparation and Delivery of Sermons*, ed. Edwin Charles Dargan, New (23d) ed. (New York: Hodder & Stoughton, 1898), 245; “THE application in a sermon is not merely an appendage to the discussion, or a subordinate part of it, but is the main thing to be done. Spurgeon says, “Where the application begins, there the sermon begins.” We are not to speak *before* the people, but *to* them, and must earnestly strive to make them take to themselves what we say. Daniel Webster once said, and repeated it with emphasis, “When a man preaches to me, I want him to make it a personal matter, a personal matter, a personal matter!” And it is our solemn duty thus to address all men, whether they wish it or not. The sermons of Jonathan Edwards, with all their power, show the evil of having always a regular “application,” formally announced or indicated. Often a brief and informal application is best. Often, too, it is better not to reserve the application for the latter part of the discourse, but to apply each thought as it is presented, provided they all conspire towards a common result. The term application is, in general, somewhat loosely employed in regard to preaching, for it includes two or three distinct things. Besides the application proper, in which we show the hearer how the truths of the sermon apply to him, and besides the frequent practical suggestions as to the best mode and means of performing the duty urged.”

예수님도 마태복음 28 장 20 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의 제자들이 자신의 교훈을 가르칠 때 그것이 추상적이거나 사변적으로 흐르지 않고 실제적으로 지켜 행할 수 있는 적용을 염두에 둔 말씀일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설교에서 적용은 성도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하나님은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신 16:16)고 하시면서 지켜 행하라는 실천적인 적용을 명령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지켜 행하여 적용할 때 삶이 형통해 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신 29:9).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말씀에서도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수 1:8)하셨다. 여기에는 말씀 해석의 중요성과 함께 적용의 중요성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깊은 묵상과 연구를 통하여 주해와 해석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공중으로 흩어져버리는 징소리처럼 청중의 마음 속에 아무 감동도 줄 수 없고 그들의 삶에서 아무런 변화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설교자는 반드시 구체적인 적용과 예시를 통하여 청중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적용은 설교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은 모든 설교자의 모토가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신 5:1).

결국 설교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성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해야 하는 것이다. 전하는 자가 때로는 신학자일수도 있고, 목회자일 수도 있고, 목양 업무를 보는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입담가나 만담가 일수도 있으나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111] 그러기 위해서는 설교자는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와 더불어 말씀을 깊게 묵상하여 먼저 자신에게 적용함으로써 경건한 삶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 설교자를 통해 선포되는 설교가 청중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될 것이다.

[111] William Barclay, *The Promise of the Spirit*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106.

BIBLIOGRAPHY

가스펠서브. *라이프 성경사전.*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6.

김서택. *강해설교의 기초*. 서울: 홍성사, 2001.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2003.

김창훈. “강단 회복을 위한 제안: (삼위) 하나님 중심적 설교의 회복” *복음과 실천신학* 제 27 권. 2013 년 봄호.

류응렬. “진리의 말씀으로 강단을 숨쉬게 하라”. 유진 로우리의 설교와 평가 연재. 기독신문, 2019.

류응렬, “Pastor as preacher”. Gordon Conwell Theological seminary, D. Min 설교 강의안, 2018.

류응렬, Pastor as Preacher: 설교, 설교 강의안, 2019

류응렬. 새설교학자들의 성경관과 개혁주의 설교. RN 리폼드뉴스, 2013.

서천석. *설교 예수님처럼 하라: 4 복음서를 통해 배우는 예수님의 12 가지 설교 노하우 / 예수님은 이렇게 설교하셨다*. 서울: 엔크리스토, 2017.

안모세. *윌리엄 퍼킨스의 산상수훈(팔복) 설교연구: 적용을 중심으로*. 신학석사 논문. 서울: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장두만. *강해설교 작성법*. 서울: 요단출판사, 1993.

전광식 편. *칼빈과 21 세기.*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9.

정장복. *한국교회의 설교학 개론.* 서울: 예배와 설교아카데미, 2006.

정장복, “설교의 적용이란 말씀의 현장화이다”. 아이굿뉴스. 2016 년 6 월 15 일.

정창균.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설교.*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02.

Andy Stanley, *최고의 설교자를 만드는 설교 코칭.* 김창동 역. 서울: 디모데, 2001.

Anthony C. Thiselton. *기독교 교리와 해석학.* 김귀탁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Bryan Chapell.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김기제 역.* 서울: 은성, 2016.

Bryan Chapell.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안정임 역.* 서울: 도서출판 씨유피, 2015.

Clyde E. Fant Jr, William M. Pinson, Jr. *성서의 설교에서 사보나롤라까지.* 세계명설교대전집 제 1 권. 맹용길 역. 서울: 성서연구사, 1986.

Daniel J. Baumann. 현대설교학 입문. 정장복 역. 서울: 양서각, 1983.

Eugene Peterson, Marva Dawn. *영혼을 살리는 설교: 본질과 현장을 모두 만족시키는 설교준비를 위하여.* 서울: 좋은 씨앗, 2008.

Fred B. Craddock. *권위 없는 자처럼. 김운용 역.* 서울: 예배와 설교아카데미, 2003.

Haddon W. Robinson. *강해 설교.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6.

Haddon W. Robinson. *성경적 설교와 설교자.* 전의우 역.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07.

Herman Bavinck, 제임스 에그린턴. *설교는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서울: 다함, 2021.

James Braga. *설교 준비.* 김지찬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4.

Jonathan Edwards. *복음설교.*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6.

Joel Bekee. *설교에 관하여.* 송동민 역. 서울: 복 있는 사람,2019.

John Calvin. *칼빈의 시편 119 편 설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2.

John D. Baumann.*현대 설교학 입문.* 정장복 역.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8.

John Macarthur. *강해 설교의 재발견.* 김동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John Macarthur. *최고의 설교: 존 맥아더 목회 40 년 성도들이 뽑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설교 12.*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2.

John Owen. *나를 기념하라.* 이태복 역. 서울: 지평서원, 2008.

John Owen. *죄 용서: 시편 130 편 강해.* 존 오웬 전집 vol. 5. 최인정 편. 박홍규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5.

John Stott. *현대교회와 설교.* 정성구 역. 서울: 생명의 샘, 2010.

Lloyd Jones. *목사와 설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20.

Lloyd Jones. *설교와 설교자.* 정근두 역. 서울: 복 있는 사람, 2012.

Merill F. Unger. *강해설교의 기술.* 편집부 역. 서울: 보이스사, 1991.

Ramesh Richard. *삶을 변화시키는 7 단계 강해설교 준비.* 서울: 디모데, 2015.

Richard A. Vardy. *절기별 명설교. 김상동 역.* 서울: 바울, 2007.

Richard Wells, Boyd Luter. *신약성경의 설교: 신약성경 속의 설교 분석.* 이승진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 2016.

Rudolf Brändle. *요한 크리소스토무스.* 이종한 역. 왜관: 분도출판사, 2016.

Samuel T. logan. *설교는 왜 하는가: 21 세기를 위한 설교자와 설교*. 천정웅, 서창원 역. 서울: 사랑의 말씀, 1990.

Sidney Greidanus. *구약의 그리스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김진섭 역. 서울: 이레서원.

Timothy Keller. *기도.* 최종훈 역. 서울: 두란노, 2015.

Timothy Keller. *설교.* 채경락 역. 서울: 두란노, 2016.

Timothy Keller. *태어남에 관하여.* 윤종석 역. 서울: 두란노, 2020.

Charles L. Campbell, “Craddock, Fred B.,” *in Concise Encyclopedia of Preaching*.

C. R. Trueman. “Owen, John,” ed. Timothy Larsen et al., *Biographical Dictionary of Evangelicals.* Leicester, England;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3.

Darrell L. Bock. *Acts.*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7.

Dave Veerman. *How to apply the Bible.* Carol Stream, IL: Tyndale, 1993.

David Martyn Lloyd-Jones. *Revival.* Westchester, IL: Crossway Books, 1987.

D. F. Wright. "John Calvin," ed. Timothy Larsen et al., *Biographical Dictionary of Evangelicals*. Leicester, England;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3.

Donald Sunukjian. *Invitation to Biblical Preaching: Proclaiming Truth with Clarity and Relevance.* Invitation to Theological Studies Series. Grand Rapids: MI, Kregel Publications, 2007.

Edwin Charles Dargan. *A History of Preaching.* vol. New York: Hodder & Stoughton, 1905.

Haddon W. Robinson. Biblical Preaching: *The Development and Delivery of Expository Messages.* Third.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14.

H. G. M. Williamson. Ezra, *Nehemiah.* vol. 16, Word Biblical Commentary. Dallas: Word, Incorporated, 1985.

I. H. Murray. "Lloyd-Jones, David Martyn (1899–1981)," ed. Martin Davie et al., *New Dictionary of Theology: Historical and Systematic.* London;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16.

J. H. Gerstner. "Edwards, Jonathan (1703–58)," ed. Martin Davie et al., *New Dictionary of Theology: Historical and Systematic.* London;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InterVarsity Press, 2016.

John A. Broadus. *A Treatise on the preparation and Delivery of sermons*. Ed. Edwin C. Dargan. Jew York: A.C. Armstrong & Son, 1898.

John Albert Broadus. *A Treatise on the Preparation and Delivery of Sermons.* New York: Hodder & Stoughton, 1898.

John Chrysostom. *Homilies on Genesis 1–17.* ed. Thomas P. Halton. trans. Robert C. Hill. vol. 74. The Fathers of the Church. Washington, DC: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1986.

Kenneth O. Bangel. *Acts.* vol. 5, Holman New Testament Commentary. Nashville, TN: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8.

Marshall Shelley. *"Introduction," in Mastering Contemporary Preaching.* Portland, OR: Multnomah, 1989.

Martin Luther. *“Sermon I: Gal. 4 From the First to the Seventh Verse, Inclusive,” in A Selection of the Most Celebrated Sermons of Martin Luther.* New York: S. & D. A. Forbes, 1830.

Michael Lawrence, “No Application? Then You Haven’t Preached” in Preaching & Theology (9marks.org).

O. C. Edwards. *A History of Preaching. vol. 1.* Nashville: Abingdon Press, 2016.

Origen. *Commentary o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Books 1–10.* trans. Ronald E. Heine. vol. 80. The Fathers of the Church. Washington, DC: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1989.

Origen. *Homilies on Luke and Fragments on Luke.* ed. Thomas P. Halton, trans. Joseph T. Lienhard, vol. 94. The Fathers of the Church. Washington, DC: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2009.

Origen. *The Song of Songs: Commentary and Homilies.* trans. and annotated by R.P. Lawson. ACW. Westminster, MD: Newman Press, 1957.

Paul Scott Wilson. *The Practice of Preaching.* Revised Edition. Kindle Locations 1893-190.

Paul Scott Wilson, *The Four pages of the sermon.*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9.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 III.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22.

S. Augustine. *Homilies on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and His First Epistle: Hom. 1–124, S. John 1–21 and Hom. 1–10, 1 S. John. vol. 1 & 2.* A Library of Fathers of the Holy Catholic Church, Anterior to the Division of the East and West: Translated by Members of the English Church. Oxford; London: John Henry Parker; F. and J. Rivington, 1848–1849.

Sinclair B. Ferguson and J. I. Packer. *New Dictionary of Theology*.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0.

Thomas Goodwin. *The Heart of Christ in Heaven Towards Sinners on Earth*. UNKNOWN. Kindle Edition.

Tremper Longman III and Raymond B. Dillard.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Second Edition. Grand Rapids, MI: Zondervan, 2007.

Trent C. Butler. *Isaiah. vol. 27.* Holman Old Testament Commentary. Nashville, TN: Broadman & Holman Publishers, 2000.

William Barclay. *The Promise of the Spirit*.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William Evans. *How to prepare Sermons.* Chicago: IL. Moody Publishers, 1939.

William Perkins. *The Art of Prophesying.* Pavlik Press. Kindle Edition.

VITA

Present Position:

Senior Pastor, The Voice CRC of VA

Personal Data:

Birthday: 7/13/1972 in South Korea
Marital Status: Married

Education:

- Gordon Conwell Theological Seminary (Doctor of Ministry, 5/2022)
- Calvin Theological Seminary, Michigan, (Th.M. New Testament,5/2016)
- Biola University, Talbot School of Theology, California, (M.A. Bible Exposition, 5/2014)
- Reformed Graduate University in Korea (M.Div., 3/2005)

Work experience:

- 1998- 2009: Gwangju Saesarang Church Evangelist, Gwangju Yunnam Church Evangelist, Incheon Pyeongan Church Associate Pastor Served in Korea
- 2009- 2020: Served as an associate pastor of Songchuk Presbyterian Church and senior pastor of Korean Church in Kalamazoo.
- 2020-Present: Serving as the senior pastor of Virginia The Voice Church.